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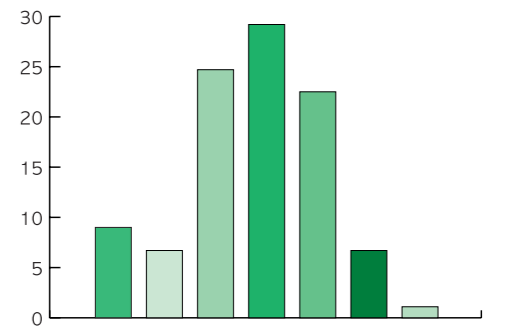
### 지면안내

**☞ 타대학 도서관은 지금 2면**  
타대학 도서관들은 첨화회를 표방하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다. 그들의 모범사례는 2002년 중앙도서관 신축 완공을 앞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타대학 도서관은 어떻게 설비,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방북취재 추진 1년 후 4면**  
창간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부터 추진해온 방북취재 준비과정을 되돌아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방이 지연되면서 통일에 대한 열기가 차츰 찾아드는 시점에서 방북취재를 통한 대학 언론인의 역할을 살펴본다.

### 동대신문 설문조사 6, 7면



**☞ 대학문화의 변화양상 10면**  
90년대와 2000년대 대학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 지난 동대신문 10년 간의 문화면을 통해 90년대 대학문화를 재조명하고 2000년대 대학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 변해가는 장례문화 11면**  
죽음이란 삶의 끝이 아니라 '일부'이다. 장례문화를 통해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거듭나는 장례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전망한다.



그레픽 - 김현준 기자

동대신문 편집국에서 기획

## 취재서 이만만 자랑해 겨우봐

정희성 (鄭義成)  
(1968년 4월 26일 출생 · 동양대생인)

남은 것만 자랑이  
귀찮은 것만 자랑이  
새벽같이 일로 달려나와 부끄러웠던  
진리의 法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만 자랑해 겨우봐  
저 조물주 시대를 거치지 못  
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전부  
우리의 잘못보다 더  
우리의 잘못이요!  
기쁘게 부끄러워하며 달려나와 부끄러워하는  
나의 모습!

한 사회 한 문화의 발전은  
그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한 사회 한 문화의 발전은  
그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가 그 결과에

# 북한산에서 4.19 정신을 되새기며

## 2천800 동국인 한마음 한뜻으로 친선과 화합 도모

4.19혁명 41주년을 기념하는 제 32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13일 북한산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불참했던 총학생회와 직원노조를 포함해 교수, 직원, 학생 등 2천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 30분 수유리에 있는 4.19 국립묘지에 모여 4.19혁명 기념식을 갖고 4인1조부터 팀별로 출발했다. 이어 진달래능선을 지나 대동문, 보국문을 거쳐 북한산성 매표소 앞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등반했다.

송석구 총장과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함께 산을 오르며 답사를 나누기도 했다.

등반을 마친 오후 4시 30분경에는 각 팀의 장기자랑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기계공학과는 학과단체상을 수상했고, 등반 중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체육교육과의 '체육관지킴이' 팀이 4인1조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운권 추첨에서는 20명의 학생이 '21세기 지도자 연수'에 당첨돼 2박 3일동안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이날 송석구 총장은 "북한산에서 동국가족 모두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4.19혁명 당시 선두에 섰던 선배들의 긍지를 가슴에 품자"고 말했다.

또한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박정희 정권시절 한일혈전에 반대하며 자신을 희생했던 김중배 선배의 기일이 오늘이었다"며 "김중배 선배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



회창한 날씨속에 진행된 등산대회. 오르막을 걷는 학생들의 얼굴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모두 밝은 모습이다.

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캠 등산 대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남산 일원에서 개최되며, 접수는 오늘(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원호관 1층 학생복지실에서 받는다.

### 도서관 진단과 전망

#### 첨단화·전문화로 앞서간다

- 1962년 도서관이 지어진 이래로 39년. 그동안 중앙도서관은 증축과 전신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급변하는 지금 도서관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3회의 도서관 계획을 통해 현재 도서관과 신축 중앙도서관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
- 1 본교 도서관 진단
  - 2 타대학 도서관 사례
  - 3 외국대학 사례로 본 전자도서관

'동시통역과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장. 학생들이 소그룹별로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동학습실.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음영도서실' 이미 몇몇 타대학 도서관은 첨단화를 표방하며 앞서가고 있다. 2002년 중앙도서관의 신축 완공을 앞두고 타대학은 도서관을 어떻게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대=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사회과학도서관, 경영도서관, 법학도서관, 농학도서관, 치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 등 총 7개의 도서관으로 이뤄져 있다. 각각의 도서관들은 분야별로 전문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도서관수만 총 220만여권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음영도서실이 마련되어 여학 자료뿐만 아니라 영화, 스포츠, 다큐멘터리, 클래식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양대=98년에 신축된 도서관인 만큼 최신시설이 돋보인다. 50여명 규모의 국제 회의장은 300여석의 대회의실과 3개의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미나실이 화상을 통해 동시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영어 등 4개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을 겸비해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장실이나 자료실출입구에 장애인용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각 자료실마다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가 배치돼 학생들이 자료를 쉽게 찾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다.

△전국대=3, 4명의 학생들이 그룹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공동학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열람실과 세미나실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학습실은 학생들의 소그룹 토론이나 조별모임에 이용되고 있다. 서울대 역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하대는 올해 작곡에 들어간 정석 도서관에 공동학습실을 만들 예정이다.

△포항공대=신간도서관을 따로 전시해 새로 출간된 책들의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신간도서관을 주제별로 분류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국내외 출판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주대와 강릉대는 전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도 일부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또한 포항공대, 서울대, 아주대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필름, CD, 비디오 등을 학생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다.

이처럼 타대학 도서관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개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공동학습실과 전문사서 배치, 음영도서실, 열람실 24시간 개방 등은 본교 신축 중앙도서관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 축구부, 춘계연맹전 출전 오는 20일 포원대와 첫 경기

축구부(감독=김승기)는 오는 19일부터 함평코리아배 전국 춘계 남녀축구연맹전에 출전한다.

한국교원대, 제주대, 안동과학대와 같은 조에 편성된 본교는 20일 건국대 축구장에서 한국교원대와 첫 예선 경기를 갖는다.

한편, 농구부(감독=최성오)는 내일(17일)부터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총 10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교는 19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단국대와 첫 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 미디어아트센터 내일 개관 영상대학원생 실습에 활용

미디어아트센터(소장=정재형·영화영상학)가 내일(17일) 개소식을 갖는다.

영상정보통신대학원 학생들의 실습수업에 활용될 미디어 아트센터는 디지털 영상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의 제작환경을 갖췄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아트센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 내 첨단 시설을 이용한 디지털 영화, CF, 뮤직비디오의 제작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학교육 정상화 위한 국민대토론회

### 교육공공성 확보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전국대학교수회 주최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학발전계획안 철회 △교권수호를 주제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비리 사학재단의 퇴진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했다. 발제자로 나선 덕성여대 성낙돈(교육학) 교수는 "재단이 학교를 사유물처럼 운영하면서 사학분규가 여러 학교에서 잇따르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 박주연 변호사는

"사학재단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국회의원들마저 사학재단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수회는 오는 6월중으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 다.

## 경찰, 대우차 노조에 불법 폭력진압

### 경찰청 게시판 네티즌 비난글 쏟아져 한때 마비

지난 10일 부평에서는 대우차 노조원들에게 경찰의 불법적인 무차별 폭력진압이 가해져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사건은 부평 대우자동차 해고자들이 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대우차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진입에 대해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노조원이 회사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막무가내로 끈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내리쳤다. 또한 '노조원의 노조 사무실 진입이 합법적이다'라고 경찰들에게 알리던 박훈 변호사도 끝반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평소 3, 40여건의 의견이 올라오던 경찰청 게시판에는 과잉진압을 비난하는 글이 하루만에 170여건 올라온 것에 이어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로 경찰청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다.

이에 13일 경찰청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인천부평경찰서장을 경질시키고 현장 관련자 전원을

문책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이 어찌다 사고친 일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탄·개혁실질을 수습할 정책대안으로 등돌린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녹원 이사장 20일 미국방문 로얄대학 학위수여식 참석

본교 오녹원 이사장이 오는 21일 진행되는 LA 동국 로얄한의원 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 로얄한의원대학 학위수여식에는 오녹원 이사장과 더불어 송석구 총장도 참석한다.

오녹원 이사장은 학위수여식 이후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 미당선생 유품 본교 기증 미공개 시작 2편 발표

본교는 지난 해 12월 타계한 미당 서경주 시인의 유품 중 일부를 기증받았다. 이는 본교와 깊은 인연을 가진 미당 선생의 뜻을 기리고, 국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미당 선생의 동생인 서정태 시

인은 이날 유가족 대표로 참석해 소장도서 430여권과 시작노트 10권 등 총 1만 2천 800여 점을 기증하고,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시작 2편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문과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유품들은 미당의 문학세계와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라며 "미당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 보리수

### 친구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부)

요즘을 극장가에는 '친구'라는 영화가 화제다. 1999년의 '쉬리', 2000년의 '공동경비구역 JSA' 등이 세운 최단기 관객동원 기록을 이미 돌파했고, 이런 추세라면 최대관객동원 기록도 곧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영화가 이처럼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에 대한 동경과 향수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인간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이해관계'가 된 지 오래고, 그런 만큼 세상은 각박하고 살벌해졌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모형제 못지 않게 소중한 존재가 친구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잠옷차림으로 만나도 흥겹게 웃으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하며 떠나가더라도 내 곁에 혼자 남아 어깨를 두들겨 줄 수 있는 친구 말이다. 옛날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었다. 이런 친구의 우정과 의리가 지꾸만 끊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일찍이 부처님은 "항을 쓴 종이에서는 한때가 나고, 생선은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하면서 나쁜 친구는 멀리하고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할 것을 역설하셨다. 나쁜 친구란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며, 술을 마셔 방종하는 사람이요, 좋은 친구란 그런 행동을 삼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끼리는 서로 잘못을 깨우쳐 주고, 선함과 덕행을 같이 기뻐하며,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버리지 않고 함께 도와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육방예경'에서는 위험에 처한 친구를 지켜주고, 병든 친구를 잘 돌봐주고, 친구가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러주고, 친구가 죽은 후에는 친구의 가족을 돌봐주며, 궁극적으로는 참다운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도 하셨다. 영화 '친구'의 흥행이 각박한 인간관계에 도타운 정과 의리를 회복시켜주는 신선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고수동정

▲손석 (법학)=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에서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에 참가 및 사회.

▲박준업 (산업공학)=지난 달 31일 서울대 LG 경영관에서 개최된 한국중소기업학회 정기총회에서 18대 회장으로 선출.

▲김철호 (한의학)=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HUGO 2001 국제인체계통학회 학술회의의 참가 및 논문발표와 '국제인체계통연구 정책결정회의' 참석.

일 립  
중간고사 관계로 2주동안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7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 헤매지 말고 바로 오세요!

## 수 습 기 자 모 집

**모집인원** : 서울 캠퍼스 00명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휴학생 제외)

**모집분야** : 취재·사진·만화·인터넷 기자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장 분량)

**원서마감** : 4월 19일(목) 오후 5시

**선발방법** : 필기시험(상식과 기사작성 등)과 면접

**선발일시** : 4월 19일(목) 오후 6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 동대신문사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다음달 1일 정각원에서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다음달 1일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에서 열린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법요식에서는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육의식도 거행된다.

한편, 정각원은 다음달 29일 오복원 이사장을 전계사로 모시고 수계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수·직원,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다양한 불교도 주간 행사 오는 23일부터 중도야

불교대학생회(회장=김대수·불교4)는 오는 23일부터 4일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중앙도서관 앞에서 불교도주간행사를 벌인다.

'마음청정 동약정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불상 주변을 청소한 후 불교대종불패 '이관사관'의 공연과 △생강엿 나누주기 △끓들 만들기 △봉축엽서 보내기 △극석사신 짝기 등의 행사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수 학생회장은 "불교도주간에 실시되는 여러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바란다"고 전했다.

### 중도, 철야개방 실시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시간 철야개방을 실시한다.

철야개방은 도서관 4층 제 3열람실만 해당되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의 외부출입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시험기간 동안 학생들의 자리맡아주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해온 '도서관 자리맡아주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동일 중구청장 초청강연 내일(17일) 덕암세미나실

행정대학원(원장=이상현·경찰행정학)은 오는 17일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주

제로 특별초청강연을 연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동일 중구청장은 서울과 자치구의 세원조정을 중심으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 분수대에 코끼리상 설치 20일 공사 마무리 예정

분수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분교 상징인 코끼리상이 설치된다. 이는 중앙정원의 경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체 공사는 오는 20일 마무리 될 예정이며, 여기에 들어설 코끼리상은 제작이 마무리돼 분수대에 설치된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좋은 경관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최상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입생 토익 평균 9점 향상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어영문학)은 지난 2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모의토익 점수를 발표했다.

올해 모의토익 전체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9점 향상된 385점으로 단과대 중에서는 문과대가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지난 3월 925점으로 1등을 차지한 주세리(분과대1)양을 비롯한 성적우수학생들은 각각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매년 평균점수는 오르지만 시험 응시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모의토익 시험은 자신의 실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졸준위, 앨범·CD 업체선정 '세븐칼라' 디자인 97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문영수·토목4)는 지난 9일 공개 설명회를 열어 졸업앨범업체 '세븐칼라'와 CD업체 '디자인 97'을 선정했다.

이날 공개설명회는 △업체별 설명 △공개질의 △투표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투표결과 외에도 거리포평화에서의 설문조사내용과 실사작업 평가결과가 반영됐다.

이번에 선정된 졸업앨범업체 '세븐칼라'는 5월중 앨범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죽마고우와 함께한 해오름 한마당

## 총학, 지난 10일 출범식 개최 ... 교육환경 개선 요구 계획

제 33대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 해오름식 '환영의 봄'이 지난 10일 만해광장에서 25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해오름식에서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을 비판하며 총학생회와 단과대의 요구인에 대해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출발선언문을 통해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고지는 학교측이 학생들을 학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도 논의하기보다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식 이후 학교측에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총학생회는 △6·15 남

북공동선언 지지·관철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 △도서관 제1열람실문제 해결 등을 학생들과 함께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등록금으로 납부하려 했던 쌀 11가마를 떡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주기도 했다.

해오름식 본마당에서는 △'아리랑' '홀' 등 민중 문예단의 공연 △6·15남북공동선언, 학원자주화투쟁과 관련한 영상물 상영 △단과대별 '새내기 뽀내기'가 진행됐다. 특히 '새내기 뽀내기'에서 신입생들은 자신의 끼를 맘껏 발휘하며 춤과 연극을 선보였다. 또한 민중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은 학생들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됐다.

한편, 사전마당으로 진행된 새



민중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에 맞춰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내기 농구대회 결승전에서 법학과가 체육교육과에 연장 접전 끝에 49 : 48로 승리를 거둬 우승을 차지했다.

## 원로교수 19인 심교수 사건 성명

### 투명성·공정성 보장 위해 인성평가 폐지요구

심회기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와 법과대 학생회(회장=손민환·법4)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명의 원로교수들이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심교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진철(정치외교학) 교수를 비롯한 원로교수들은 지난 9일까지 몇 차례 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해 심회기 교수 이외에도 김익기 교수 해임과 감사원 교수 징계가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교수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인성평가 폐지등을 학교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심익섭 교수회장은 재단이 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회기 교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는 입장을 전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3주 동안 진행한 교수 서명운동의 결과를 토대로 오복원 이사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과대 학생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연거푸 법과대 학장과 면담을 통해 심회기 교수의 공개 채용을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동연, 오는 18일 전동대회 개최

### 비대위 인준·기독교 연합회 등록 심사 주목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우·전기4, 이하 동연 비대위)는 오는 18일 연화원에 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동대회에서는 △보궐선거 관련 보고와 비대위 인준 △동아리연합회 학자요구안 보고 △상반기 사업계획 인준 △신규 동아리 등록과 동아리 재등록 심사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동아리연합회는 지난달 30

일 진행하려던 보궐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취소되면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연 비대위 차원으로 △동아리 지원금 인상 △동아리방부족 해결 등 지난 임시 전동대회에서 논의된 요구사항을 동아리 5대 요구안으로 보고, 학교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도 신규 동아리 등록을 신청한 동국대학교 기독교연합회의 등록 심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동국사이버대학 설립 신청

## "특성화로 경쟁력확보 기대"

### 불교학·경찰행정학 등 특화전공 개설 계획

본교 가상대학이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동국사이버대학(가칭) 설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온 독립 가상대학 설립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동국사이버대학은 교수회관 2층 공간을 연구실로 확보하고 △불교 △예술창작 △경찰행정 △사이버 실무 4개학부에 8개전공을 개설해 1천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독립 가상대학이란 현재 부속기관으로 운영중인 가상대학을 확장해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한 대학을 의미한다.

지난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학사학위 과정 7개교와 전문학사 학위과정 2개교 등 총 9개 대학이 컨소시엄 또는 독립 가상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입학이 가능하며, 졸업할 경우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시간

적·공간적으로 제약이 받던 직장인 등도 집에서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사이버 MBA를 개설한 아주대 경영대학원 역시 합격자 110명 중 91%가 직장인이었으며, 변호사 검사 의사 등 다양한 직종의 266명이 지원했다. 이미 단독 독립가상대학을 설립한 경희대와 세종대도 지난해 신입생 모집결과 평균 3대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세종사이버대학의 경우 특화부문 전공인 호텔관광경영학, 만화·애니메이션학 등을 개설해 자체 스튜디오 시설에서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혼자 학습하면서 지루하기 쉬운 원격교육의 단점을 극복했다.

동국사이버대학의 승인여부는 앞으로 3개월동안 설립계획안의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교육부가 본교의 시설설비를 검토한 뒤 11월말 최종 승인이 결정된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 회전문대

### 홍두사미

○...얼마전 열린 총학생회 해오름식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다는데.

알아보니, 총학생회 해오름식 중간에 학생들이 먹다 버린 음료수 캔이나 피자봉지 등이 치워지지 않아 아침까지 나뒹굴었다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출범식에서 학생들의 성숙한 모습 부족으로 오점을 남긴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뒷풀이를 잘했으면 뒤처리도 잘 해야지"

### 미당 vs 열람실

○...얼마전 열린 신축 중앙도서관 기공식에서 영동한 풍경이 연출됐는데. 알아보니, 기공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한편에서는 신축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미당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열람실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념관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열람실만 있을 때 우리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나?!"

### 출입금지

○...투명! 학생들의 출입을 저지하라?

혜화관 출입구로 오가는 학생들이 정면으로 걸지 못하고 옆으로 걸어야만 한다는데.

이유인즉, 출입구 앞에 즐비하게 주차된 차들로 인해 학생들이 다닐 길이 없어서라고.

주차금지라는 글자가 바닥에 큼직하게 찍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버젓이 들어서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혜화관을 출입하려면 초특급 다이어트를!"

### 주문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토익시험'이 있으나 마나하다던데.

50%는 시험을 아예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응시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난으로 시험을 보고 급기야 성적표가 나와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니.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자신의 영어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 처음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니.

이에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한 학생 알, "신이시여, 모의토익 시험에 들게 하소서?!"

##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맞이 연등 & 축원문(사연) 대공모

온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4월을 보내는 방법...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의 불을 밝히고, 축원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학생실과 정각원에서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동양의 모든 분을(개인/단체불문)대상으로 연등과 축원문(사연)을 공모합니다.

### 공모부문

-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연등 부문**  
아름다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창의적인 연등을 만들어 보세요. 효(孝), 사은(師恩),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통일기원, 합격기원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은 독창적인 등이면 됩니다.
- 감동적인 축원문 부문**  
감사의 마음, 기원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잊을 수 없는 분에 대한 고마움, 자신을 일으켜 세운 스승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미안했던 사람에게, 200자 원고지 5매 내외(A4 1~2장) 분량으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원문을 쓰시면 됩니다.

### 시상내역

	연등 부문	축원문 부문
으뜸상(각 1명)	상금 30만원과 상장	상금 20만원과 상장
버금상(각 1명)	상금 20만원과 상장	상금 10만원과 상장
아차상(각 2명)	상금 5만원과 상장	상금 5만원과 상장

### 공모기간 및 접수처

2001년 4월 16일(월)~4월 24일(화), 계산관 1층 여학생실(사범대 옆)

### 발표 및 시상식

2001년 4월 27일(금) 오후 2시 불상 앞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2260~3056)로 문의 바랍니다.

## 정각원 · 여학생실

## 전 동국인 연등 달기 안내

불기 2545년 4월 초8일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중생들을 자비광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처님은 오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올린 초라한 등불은 아무리 끄려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복종의 복은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인연복입니다. 정각원에서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성불하는 지혜의 등, 부처님 나라 이루는 희망의 등, 동국이 약진하는 정진의 등' 달기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고, 우리의 지극한 소원이 담긴 정성스런 연등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 접 수 기 간 : 4. 9(월) ~ 5. 1(화)
- 연 등 접 수 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정각원
- 연 락 처 : Tel 2260-3016 Fax 2260-3744

## 정각원

## 산업기술환경대학원 특강

1. 강의제목 : 21세기 한국경제 진단과 중소기업의 역할
2. 연 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회장
3. 강연일시 : 4. 18(수) 오후 7시
4. 강연장소 : 원흥관(E) 103 강의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안에 따른 문제점 논단

한반도 평화 해치는 불합리한 요구

올해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43%(금액으로는 4억 4,85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내년에는 미군주둔비 분담 비율을 50%로 늘려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한국은 지금보다 20%정도 늘어난 1천 2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먼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20%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현재도 주한미군 주둔비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과중한 분담금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비율은 1991년 16.8%(금액으로는 1억 5천만 달러)에서 2001년 43%(금액으로는 4억 4,850만 달러)로 10년 사이에 무려 세배나 늘어났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이 매년 평균 30% 이상씩 늘어남으로써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국방비의 짐을 달기 는커녕 더욱 무겁게 지지 않으면 안되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이같이 정부예산에서 지출되는 직접지원비 말고도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나 각종 조세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매년 막대한 금액의 간접지원비를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1999년의 간접지원비는 1조 2천억원을 넘었다. 이렇듯 한국민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직접 지원비) 말고도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군주둔비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 20% 증액 요구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에서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일본의 5배, 독일의 1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 미군 주둔비를 얼마나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강제·억지 회생

한국의 경우 미군주둔비 부담이 매년 평균 30%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1994~1997년 사이에 연평균 57.3%가 줄었다. 일본은 1989~1996년 사이에 연평균 5.4%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00년에는 미국과 미군주둔비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미국

이 미군주둔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가 매년 천문화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를 미국무기 도입에 낭비함으로써(1999년 한해에만 한국은 42억 달러어치의 미국무기를 도입하였고 현재도 부시정부는 10조원이 넘는 자국산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국민경제가 위기로 치달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20%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민에게 최대한 희생을 강요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강도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은 1991년에 맺어진 '한미소과 5조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 특별협정(이른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소과 5조는 "미국은 (한국)시설과 구역, 통행권을 제공하는 데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과 5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맺은 한미소과를 어겨가면서까지 한국에 미군



박기학 민족화해저동일협회 정책위원장

시대 흐름과 정면 배치

그러나 어리석게도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미군 주둔비를 부담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평등한 소과개정 국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증액을 단호히 반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기도는 자주와 평화를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 앞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사설

독자의 목소리 담는 대중언론으로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요즘, 종이신문은 설 자리를 잃어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자문해 본다. 이미 기존 일간지는 종이신문과 다르게 인터넷상에서 '웹진'이라는 또다른 형태로 독자들에게 기사를 전달하고 있다. 일간지뿐 아니라 이와는 차원이 다른 '오마이뉴스'와 같은 뉴스사이트도 너무나 친숙하다. 1년 전과는 무척이나 달라진 상황인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신문들도 앞다투어 '종이신문'을 인터넷에 옮겨 놓았다. 각 대학신문사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인터넷에 독자를 빼앗긴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대학신문들은 인터넷에 빼앗긴 독자를 어떻게 다시 찾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올해로 동대신문은 '창간 51주년'을 맞이했다. 오늘이 있기까지 동대신문은 대학언론으로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대학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실험정신과 창조성을 무기로 기존 언론과는 다르게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자들의 이탈문제를 비롯,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창간 51주년을 맞아 서울캠프 경주캠프 독자 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동대신문의 모습을 여과없이 표현해 주고 있다. 우선 본교 독자들이 동대신문을 읽는 주된 이유는 '학사정보를 얻기 위해서(36.2%)', '무로이기 때문에(26.5%)', '습관적으로(19.6%)'라는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구독자의 46.1%가 뚜렷한 목적없이 동대신문을 읽는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독자들이 동대신문을 찾아서 불만족의 영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동대신문 만족도 조사 역시 이러한 독자들의 성향을 보여준다. 전체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매우 아니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척도에서 지표기준 2.5의 2.42로 보통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었다.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속제로 남았다. 동대신문 홈페이지 인지도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69.6%가 홈페이지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동일항목 응답자가 72.5%이던 것에서 2.9% 감소하긴 했지만 독자들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본교 독자들의 98.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보면 1년간 동대신문 홈페이지 인지도는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준하여 동대신문은 네트워크 세대로 불리는 주 독자층을 고려해 홈페이지에 관한 홍보와 개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시민이 곧 기자'라는 인터넷 실시간 뉴스 사이트 '오마이뉴스'에 일반 시민이 기자로 동승, 함께 만들어 가는 것처럼 동대신문 역시 '독자가 곧 기자'라는 생각으로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독자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길이며 동대신문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진 부분이다. 이를 위해 동대신문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신문 배부대에 놓여있는 동대신문이 남기지 않도록, 대학언론의 위기나 종이신문의 존재 여부가 거론되지 않도록 독자의 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대학 사회의 '공기'로 자리잡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실험정신과 창조성'을 무기로 기존 언론과는 다르게 사회와 대학을 비추기 위해 발빠르게 동약을 누빌 것이다.

창간 51주년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동대신문은 '대중언론' 창을 그 한길'을 위해 발걸음을 띠고 있는 과정에 있다. 독자가 지적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단점을 극복하는 동대신문으로 거듭나는 날까지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기대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대학개혁에 교수 목소리 담아야

사립학교법 개정 ... 교수 위치 찾기 시작

우리나라 교육과 대학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

교수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이하 민교협)는 지난해 10월 교수노동조합추진기획단을 발족해 5개월 간의 준비 끝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교수노동조합추진기획단 이성백(서울시립대 철학) 서울지역 부단장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대학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비리는 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노조를 설립해 교수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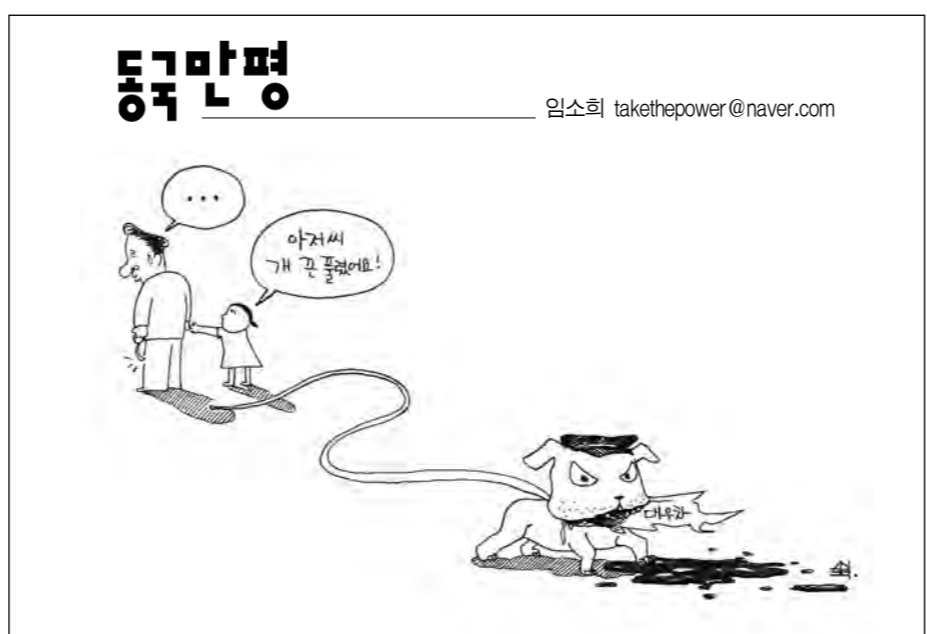
하지만 '교육자는 스승이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교수노조가 교수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정 사무총장은 "교수는 현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

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계약제·임용제 등으로 교수들의 조건이 나빠지고 있지만 노조 결성이 아닌 교수협의회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수의 계약제·연봉제가 일부 도입되고 있고 교육부는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정해 내년부터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교수의 계약제·연봉제는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정적인 보수조차 기대하기 어려워 교수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연구성과 저조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가시화된 계약제·연봉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교수노조(준)는 5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다. 또한 교수노조(준)는 올해 8월중 교수노조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교수의 노조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민교협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33조에 저촉된다"며 교수노조 설립을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



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올해 안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이 불법단체로 출범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본교 교수회 회장 심익섭(행정학) 교수는 "현재 교수회는 단결권, 교섭권이 없지만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대학운영에 교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의 단체로는 협의 자체도 불가능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학은 교수 일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평균 두 배에 이르는 39.7명이고 이

로 인해 교수들의 연구환경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덕성여대, 숭실대 등에서 불거져 나온 사학재단 비리문제로 대학개혁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전하고 학문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기본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대학을 이루는 구성원 중 하나인 교수가 대학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Table with Dongguk University Press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for Seoul and Gyeongju camp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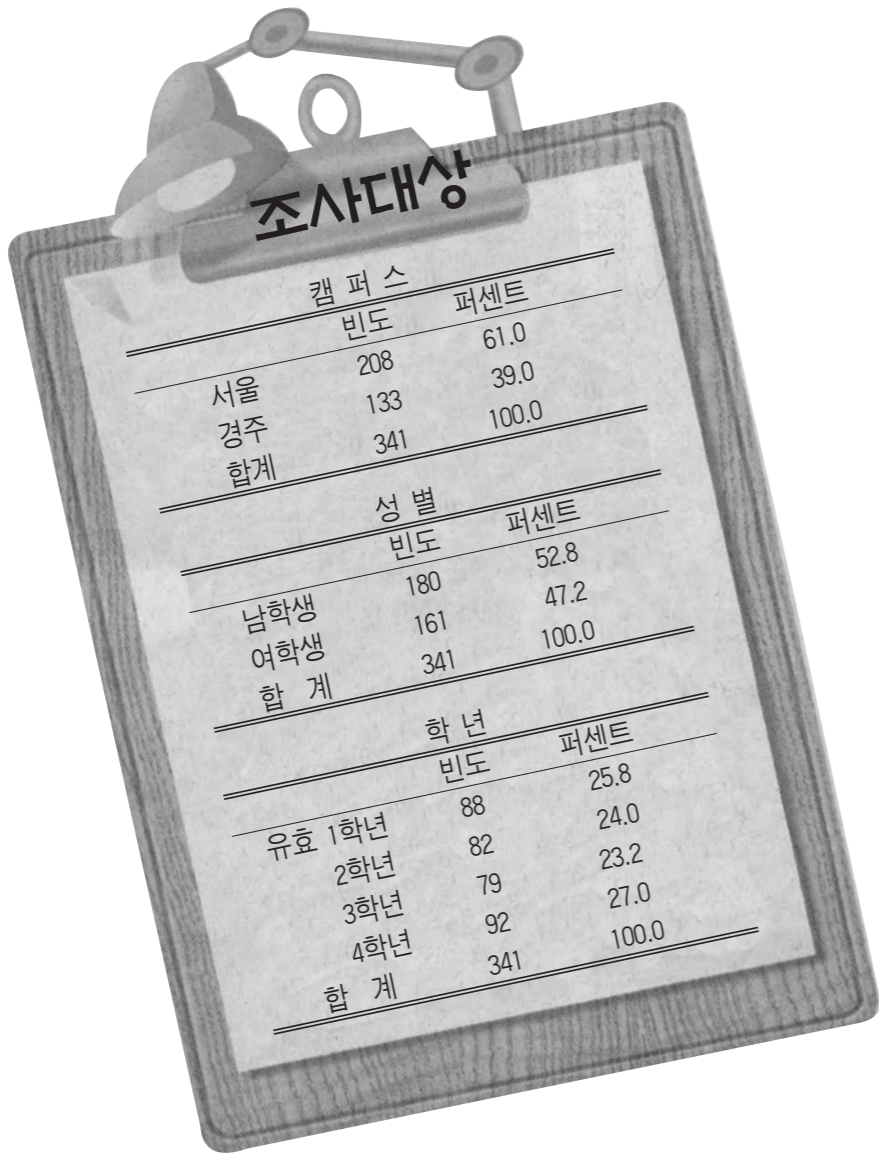
Large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Hospital. Features the slogan '작은 빗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Small droplets form a big river!). Includes text about the hospital's history and services, and a list of contact information for the hospital.

# 다수 학생, 언론 개혁운동 찬성

동대신문 창간 51주년을 맞아 본교 재학생들의 대중매체 선호도를 파악하고 동대신문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본교 대학원 사회학과내 사회조사학회에 의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 조사방법

이번 조사는 2001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 구성은 전체 재학생 21,739명(서울 13,072명, 경주 8,667명)을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서 ±5%의 허용오차 내에서 구성하였다. 표본은 캠퍼스, 단과대, 학년, 성을 기준으로 층화 표본 추출법과 할당법을 병행하여 구성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캠퍼스는 조사가원이 직접 응답자를 찾아가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경주 캠퍼스는 경주의 신문사 기자들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다.



## 대중매체

### ■ 이용매체

매체	빈도	퍼센트
신문	54	15.8
잡지	8	2.3
라디오	11	3.2
텔레비전	116	34.0
인터넷	149	43.7
기타	3	9
합계	341	100.0

(단위: 명, %)

조사결과 동국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응답자 중 43.7%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대답했으며 그 다음은 텔레비전 (34.0%)과 신문(15.8%)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 대중매체 이용 이유

이유	빈도	유효퍼센트
정보가 많아서	50	14.7
재미가 있어서	44	12.9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167	49.1
습관적으로	77	22.7
기타	2	0.6
합계	340	100.0

(단위: 명, %)

학생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접할 수 있어서' (49.1%)이다. 그 다음으로 '습관적으로' (22.6%), '정보가 많아서' (14.7%) 순서이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경우에는 제한된 선택권에 의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터넷은 거의 무한대의 자료 선택권이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신문

### ■ 주로 읽는 신문

신문	빈도	퍼센트
종합 일간지	215	63.2
경제신문	25	7.4
스포츠신문	100	29.4
합계	340	100.0

(단위: 명, %)

학생들이 주로 읽는 신문은 일간지가 63.2%로 다른 신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 신문이 29.4%, 경제 신문이 7.4%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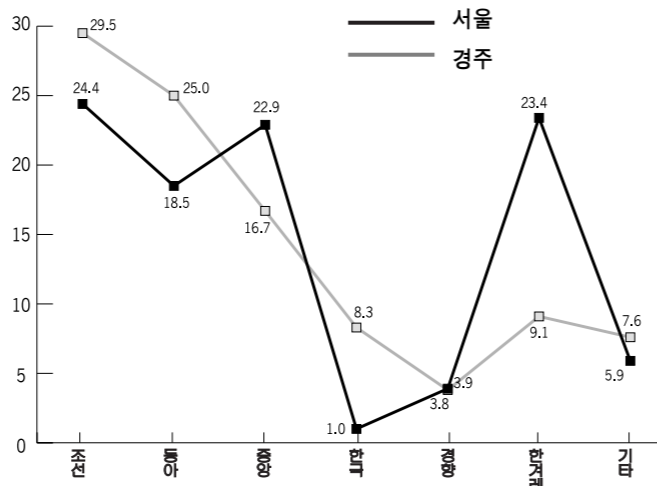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캠퍼스, 학년,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캠퍼스에 따라 주로 읽는 신문의 차이는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종합 일간지의 비율이 높으나 경주 캠퍼스의 경우에는 종합 일간지와 스포츠 신문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먼저 캠퍼스를 고려하여 제일 많이 읽는 신문을 살펴보면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 조선일보와 한겨레, 중앙일보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주캠퍼스의 경우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한겨레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편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구독율을 비교해 보면 1999년 조사에서 30.7%와 12.6%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26.4%와 17.8%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티조선운동을 비롯한 언론개혁운동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 캠퍼스별 가장 많이 읽는 신문



### ■ 학년별로 가장 많이 읽는 신문

신문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제일 많이 읽는 신문	조선일보	24	24	27	14	89
동아일보	21	16	12	22	71	
중앙일보	24	14	17	14	69	
한국일보	3	4	4	2	13	
경향신문	3	1	4	5	13	
한겨레	6	15	12	27	60	
기타	6	7	3	6	22	
전체	87	81	79	90	337	

(단위: 명)

학년에 따른 특징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비해 한겨레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구독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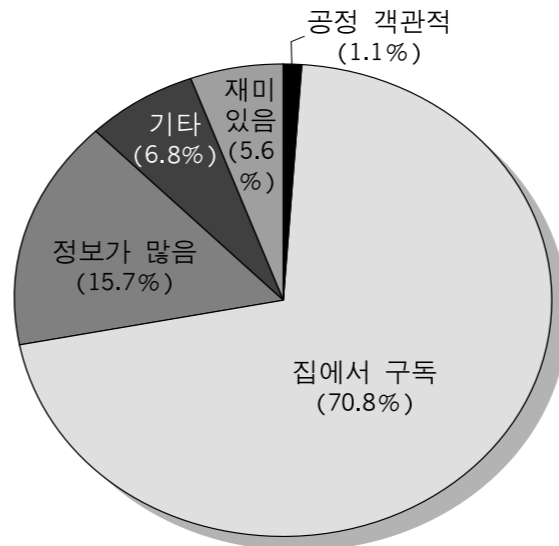
학생들이 이러한 신문을 많이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 구독하기 때문(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용할 정보가 많아서(16.1%), 공정 객관적이어서(10.7%) 순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신문의 지면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신문지면은 스포츠(25.3%), 사회(23.2%), 문화(22.3%), 정치(10.1%)의 순서로 나타났다.

### ■ 많이 읽는 신문에 대한 신문 구독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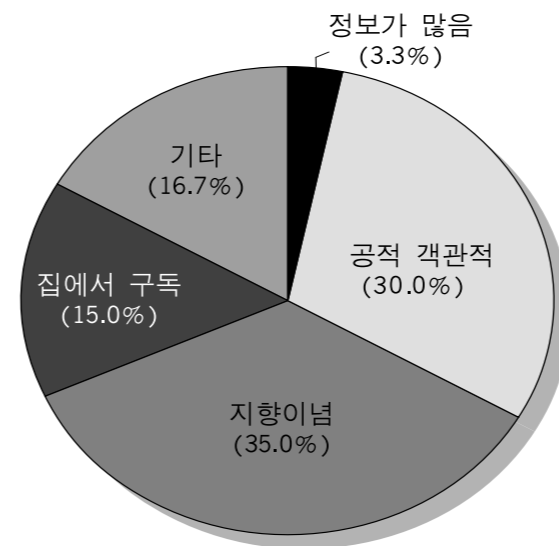
학생들이 주로 읽는 신문은 일간지가 63.2%로 다른 신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 신문이 29.4%, 경제 신문이 7.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캠퍼스, 학년,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캠퍼스에 따른 주로 읽는 신문의 차이는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종합 일간지의 비율이 높으나 경주 캠퍼스의 경우에는 종합 일간지와 스포츠 신문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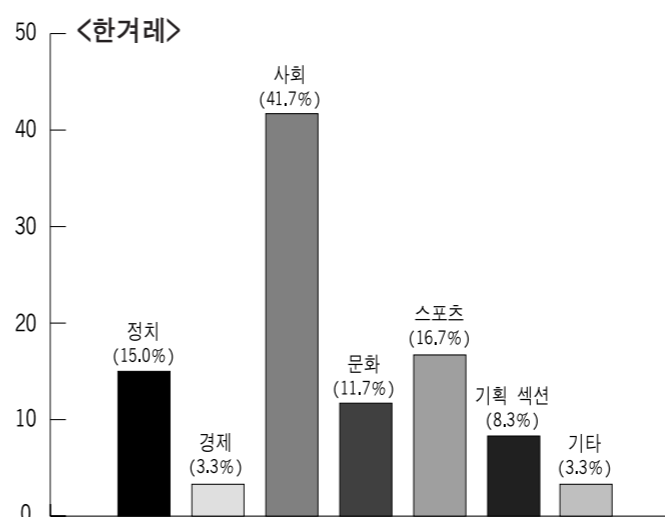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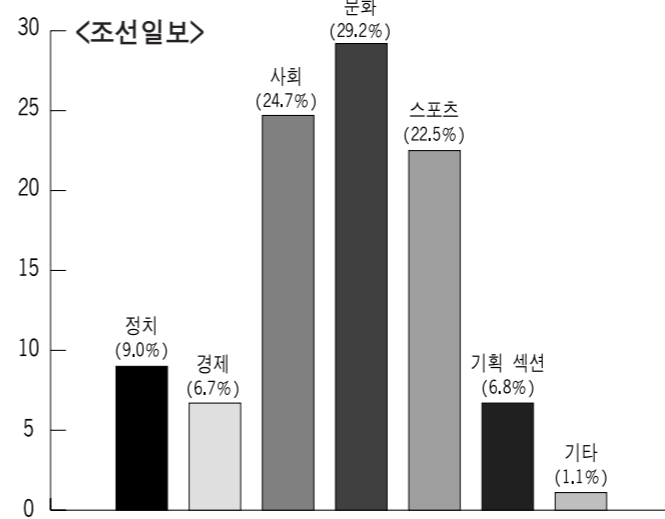
<조선일보>



<한겨레>

### ■ 신문별로 가장 많이 읽는 지면

제일 많이 읽는 지면을 교차 분석을 해보면 학생들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 학생들은 한겨레의 경우 사회면 (41.7%)을 가장 많이 본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신문들은 문화와 스포츠면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응답했다.



이상과 같이 대중매체 중 신문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종합 일간지를 읽는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의 차례로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신문을 읽는 주된 이유는 집에서 구독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한겨레의 경우에는 '지향이념이 맞아서'와 '공정 객

관적이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문에 따라 읽는 지면을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사회, 문화, 스포츠 면을 많이 읽는다고 응답한 반면, 한겨레를 읽는 사람들은 사회, 스포츠, 정치면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신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 언론개혁운동

### ■ 언론개혁 운동에 대한 의견

의견	빈도	퍼센트
매우 찬성	72	21.1
찬성	245	71.8
반대	21	6.2
매우 반대	3	9
합계	3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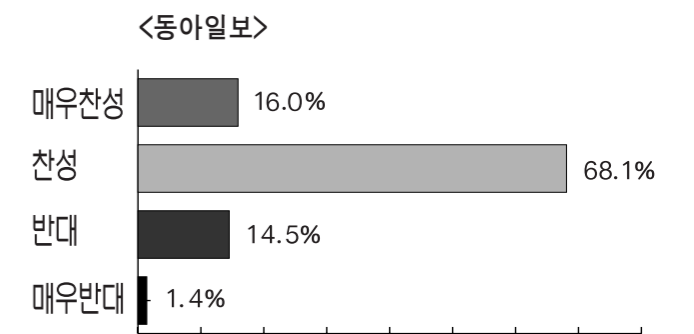
(단위: 명, %)

시민단체의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중 매우 찬성 21.1%, 찬성 71.8%로서 총 응답의 92.9%가 시민단체의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언론개혁 운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시민단체의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한 찬성보다는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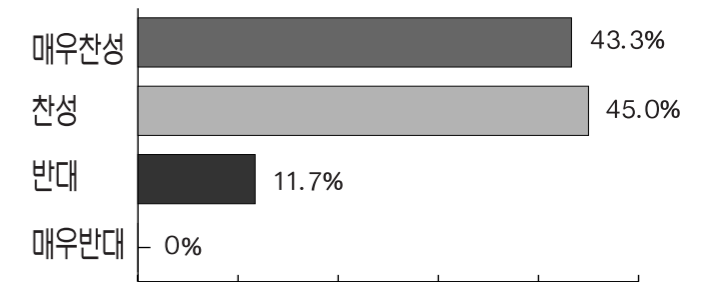
제일 많이 읽는 신문에 따른 시민단체의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한 교차표를 보면 한겨레를 읽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안티 조선 운동에 찬성하는 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읽는 학생들 중에는 안티 조선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조선일보의 문제점으로는 심한 왜곡 보도 (45.3%), 정경 유착(30.3%), 친일 행각(12.0%)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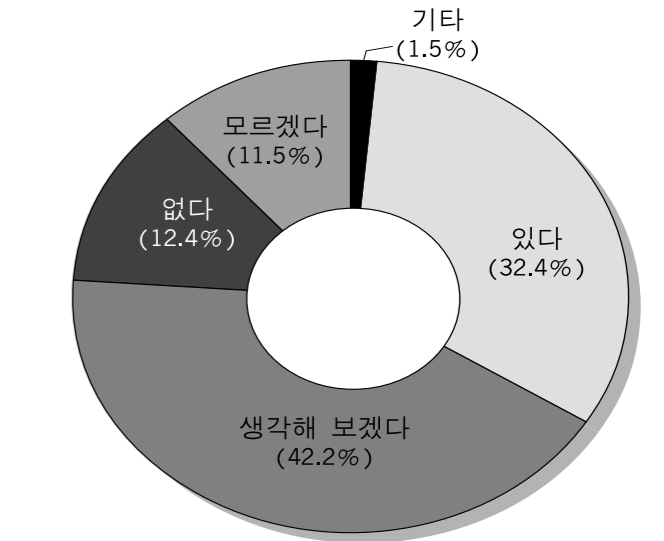
### ■ 읽는 신문에 따른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의견



<한겨레>



### ■ 조선일보 구독 거부에 대한 의견



학생들이 조선일보 구독 거부를 권유받았을 경우에 이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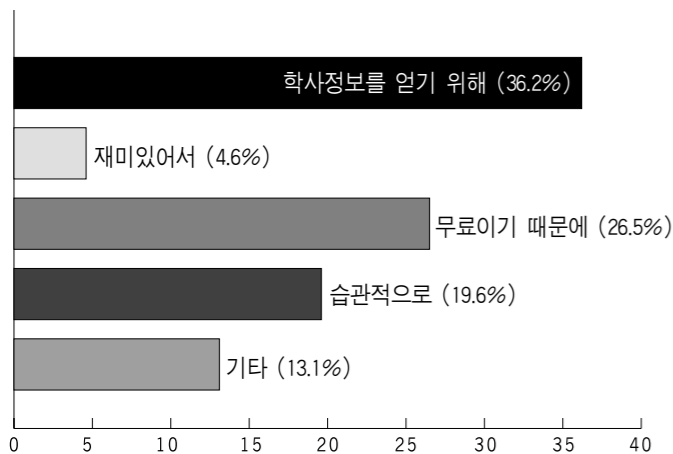
또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언론 개혁에 대한 인식은 정부 주도의 언론 개혁 운동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해 75.2%의 학생들이 찬성하는 것과 같이 언론 개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운동이나 정부의 언론 개혁 운동에 찬성을 하고 있으며, 언론 개혁운동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 조선 운동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고 있다.

# 대중언론 창출 그 한 길에서...

## 구독여부

동대신문 구독 여부는 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7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23.5%라는 적지 않은 수가 동대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특히, 신문의 구독여부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경우 51.7%가 동대신문을 구독하는 반면 2학년 학생들은 79.3%, 3학년 학생들은 86.1%, 4학년 학생들은 89.1%가 구독하고 있다. 이것은 동대신문을 저학년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동대신문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접근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대신문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는 저학년 학생들의 동대신문에 대한 인지도와 구독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별다른 홍보 없이 동대신문을 배포하는 방식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별다른 주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 혹은 장소에 동대신문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다.

## 동대신문을 읽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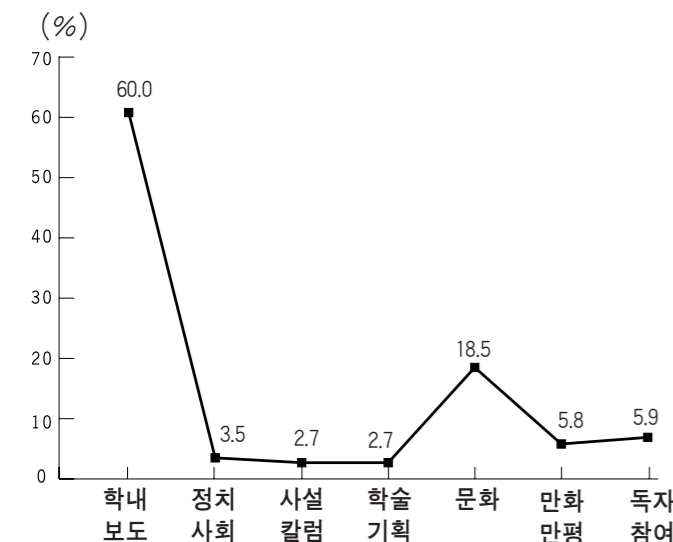
본고 학생들은 신문을 읽는 주된 이유로 '학사정보를 얻기 위해서'(36.2%)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무료이기 때문에'(26.5%), '습관적으로'(19.6%)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무료이기 때문에'라는 응답과 '습관적으로'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데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동대신문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구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동대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동대신문의 전체적인 구독율을 높이는 측면과 연결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은 대개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학사정보이든 재미든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와 다른 매체에서는 전달해 주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 인지도

동대신문의 인지도는 기준인 2.5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어 학생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지도의 각 항목에서는 정확성이 2.1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공정성이 2.36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만족도

### 주로 읽는 기사



동대신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지수가 2.42로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좀더 나은 동대신문으로서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기사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동대신문의 기사중 주로 학내보도(60%)를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교지의 성격인 동대신문에서 좀더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의 두 번째(20.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동대신문이 학내 보도를 중심으로 한 학사정보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내보도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즉

### ■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

기사종류	빈도	유효 퍼센트
학내보도	91	35.7
정치사회	9	3.5
사실칼럼	25	9.8
학술기획	22	8.6
문화	53	20.8
만평만화	18	7.1
독자참여	37	14.5
합계	255	100.0

### ■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

기사종류	빈도	유효 퍼센트
학내보도	14	5.6
정치사회	76	30.2
사실칼럼	37	14.7
학술기획	39	15.5
문화	23	9.1
만평만화	32	12.7
독자참여	31	12.3
합계	252	100.0

### ■ 좀더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기사종류	빈도	유효 퍼센트
학내보도	53	20.6
정치사회	46	17.9
사실칼럼	19	7.4
학술기획	33	12.8
문화	63	24.5
만평만화	16	6.2
독자참여	27	10.5
합계	257	100.0

### ■ 개선되었으면 하는 기사

기사종류	빈도	유효 퍼센트
학내보도	37	14.5
정치사회	62	24.2
사실칼럼	44	17.2
학술기획	36	14.1
문화	31	12.1
만평만화	11	4.3
독자참여	35	13.7
합계	256	100.0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에서는 학내보도(5.6%)가 가장 낮은 비율을,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의 가장 높은 비율(35.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동대신문은 기존의 언론매체와는 다른 성격임에 분명하다. 즉, 학내 신문으로서 동대신문 정치 사회 혹은 학술 기획 등에 기사에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좀더 다루길 바라는 비율도 17.9%와 12.8%로 문화와 학내보도의 24.5% 20.6%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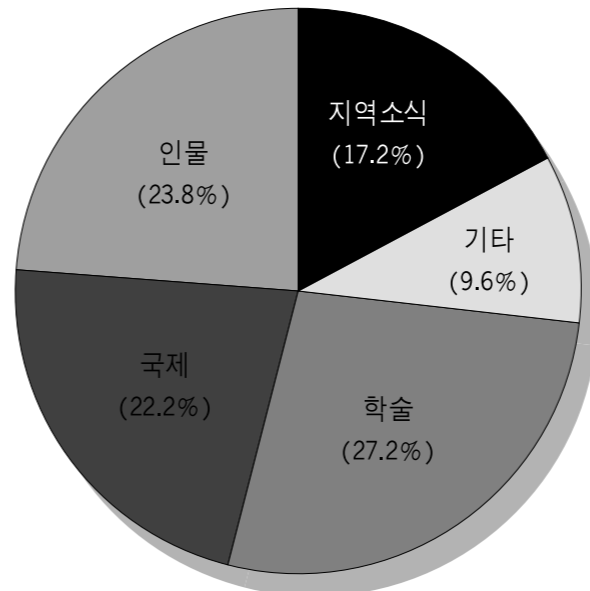
이번 설문에서 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은 없었지만, 왜 학생들이 왜 현재까지 동대신문의 정치·사회 혹은 학술·기획 등의 기사에 대해 관심도 적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상해 보자면, 학생들이 학내 신문으로서의 동대신문에서 일반 정치·사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내 신문으로서 동대신문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낮은 목소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버리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거부감 없이 정치·사회 혹은 학술·기획 등의 기사가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강화부문

### ■ 강화했으면 하는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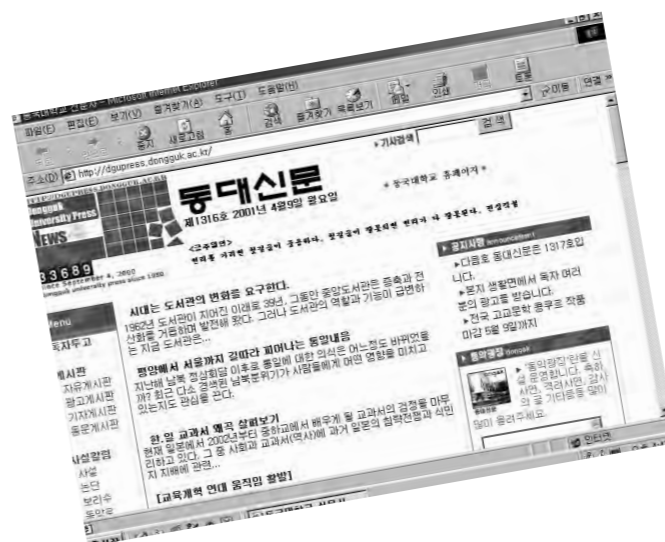


### ■ 강화되었으면 하는 학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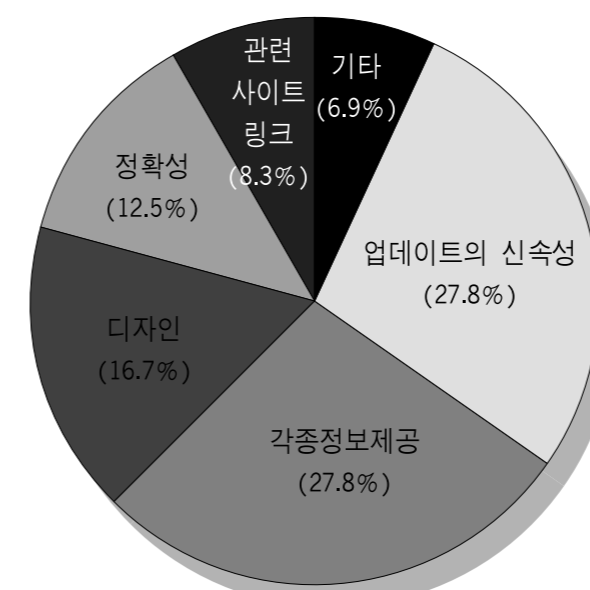
분야	빈도	유효 퍼센트
인문과학	27	22.4
사회과학	21	27.6
자연과학	23	30.3
예술기타	15	19.7
합계	76	100.0

이 중에서 학술부문에서는 이 부문을 강화했으면 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원하는 분야가 다양해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샘플링에서 각 단대의 비율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비율을 더 늘려달라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대신문은 학술분야의 강화를 특정부분에 한정해 늘리기보다 각 분야를 골고루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 신문에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의 학술 관련 지면을 같은 비중으로 할당한다거나, 기획 시리즈로 인문, 사회, 자연, 예술을 돌아가면서 기사화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홈페이지



### ■ 홈페이지 개선점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의 69.6%

의 학생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표 43). 앞으로 동대신문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동대신문 홈페이지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대신문 홈페이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사람은 8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기적이거나 아예 접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이에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개선했으면 하는 부문은 업데이트의 신속성(27.8%)과 각종 정보 제공(27.8%)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디자인(16.7%), 내용의 정확성(12.5%), 관련 사이트 링크(8.3%) 등이 있었다. 결국 홈페이지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문은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독자 투고란에는 거의 글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에서 독자 투고를 한 학생은 6.8%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신문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은 홈페이지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존재를 아는 학생들도 전혀 접속하지 않거나 비 정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다. 이처럼 동대신문 홈페이지는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홈페이지의 개선점을 신속한 업데이트와 각종 정보 제공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인터넷이었고, 저학년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동대신문 홈페이지의 인지는 표 47과 같이 학년이 낮을수록 동대신문 홈페이지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도는 높아지는데 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저절로 알게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동대신문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용하는 대중매체의 흐름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가야 한다.

## 종이 신문의 미래

전자 신문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종이 신문은 계속 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8.9%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로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종이신문의 역할과 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99)



소나기

화염병 던지려면 인권도 내던져라(?)



△화염병을 막으려면 인권도 막아봐라!  
인권이란 다름 아닌 싸울 권이다.  
△그럼 화염병 던질 권리가 '인권'과 대등하단 말이나.  
△오죽했음 던졌겠냐. 인권과 화염병을 동격으로 보지 마라.  
△화염병은 어디까지나 방어의 수단이지 공격의 수단이다. 화염병으로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시위에 칼을 씌어 더 수월치 않을까?  
△던지고 싶을 땐 던져라.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가? 이름을 밝혀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바란다.  
△화염병은 부패·부조리를 태우기 위함이다!  
△맛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화염병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화염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폐가 된다.  
△방법을 말해달라. 아바 없을 걸...  
△화염병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지를 막는 지도 모른다.  
△화염병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시위는 싫어!  
△그럼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우리 부모님의 한숨을 던지는 것이다!  
△인권을 던지게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본질에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방법이 틀렸다면 본질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화염병 던지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결국 문제는 양자에게 있다.  
△집회에 한번이라도 참여해 보셨나요? 왜 그 사람들이 협력집회를 해야했고 화염병을 던져야만 했는지...  
△벼랑끝으로 내몰린 자들이 던질 수 있는 것이 화염병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  
△화염병=너희가 마신 소주병  
△달라이 라마는 힘없어서 비폭력 투쟁하냐?  
△우리는 화염병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왜 던지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염병을 던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싫다.  
정말로...

오슬길

박차옥경 (고고미술사 94졸)  
대중과 함께하는 본사 출신 여성운동가

“동대신문사에서 세상 보는 눈을 배웠어요”

“42기라구요? 내가 31기인데...”  
선·후배의 기수차가 10년 가량 된다는 것에 다소 놀라며 말을 건넨 박차옥경(고고미술사 94졸) 동문. 그녀는 본사 출신의 여성운동가다.  
“신문사 생활을 통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회를 다르게 보는 눈을...”  
기자가 되고 싶어 입사한 동대신문사에서 박차옥경 동문은 기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들을 얻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사회의 모순과 신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성문제에 관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법률제정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호응이 적은 것을 무엇보다 안타까워한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할 때는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전화를 하는 여성들도 있어 곤혹을 겪은 적이 많아요”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웃으며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다.  
오는 7월이면 드디어 임마가 된다는 박차옥경 동문. 그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끊임없이 사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끊임없는 궁금증으로 사회에 대해 올바른 안목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사회 생활을 하는데 신문사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라며 후배들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대중인론 창출’의 한 길을 갔던 박차옥경 동문. 그녀는 지금도 여성들을 위해 그 길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여성들의 대변자로 더욱 빛날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화'

미국에서 연수를 받는 동안 '종교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수업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영어의 특성상 학생들의 태도가 한국인인 우리가 보면 조금은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들의 자신 있는 '자기 표현' 방식이었다.  
학생의 실력이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서로의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학 수업은 암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름의 논리를 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수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는 학생들의 의문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서 그에 따른 밝은 길을 제시해 줘야 하고, 학생은 솔직한 표현을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인문학은 자기 표현이 필수적이어야 함에도 사실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기성세대들이 어린 학생들의 세계관을 '너 어려서 아직 세상을 모른다'는 한마디로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양자에게 책임이 있다.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평가는 서로 간의 대화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 공유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김경래 (불교대 인도철4)

흡연문화 개선해야

최근 남녀를 불문하고 흡연자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흡연자가 누릴 쾌적한 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주캠퍼스는 도서관내에 흡연 구역을 정하고 곳곳에 '흡연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재를 바닥에 버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피우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흡연자들도 마땅히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다. 몇 명의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중간고사가 시작되고 학생들도 하나 둘씩 도서관으로 모여들 것이다. 더 이상 도서관 4층에 있는 흡연구역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

아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상쾌한 기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자그마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체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뜻있는 흡연자가 되길 바란다.  
이미라 (자연대 인전공4)

장애우에게 관심을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몇 명의 장애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은 계단을 오를 때, 식판을 들고 밥을 받을 때 참 힘들어 보여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대부분 같은 장애인들끼리만 모여 다니며 지낸다는 점이다. 얼마 전, 혼자 외로이 걸어간 장애인 친구에게 같은 과 한 친구가 반갑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봤고 그는 매우 밝은 얼굴로 인사를 받았다.  
장애인이 대학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인이 서울대에 가는 만큼 힘들다. 왜냐하면 아무리 장애인 특혜제도를 마련해 줘도 그들이 받는 중·고교 교육시설은 극히 부실하고 그들의 신체 자제가 학습 능력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력 끝에 그토록 어렵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들의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다양한 측면 제시해야

평소 동대신문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해서 읽는 면이 여론면이다.  
지난 호 여론면에서는 '경주캠프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에 관한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  
특히 학생들과 학교측의 생각이 대립되는 '쟁점'인 학생회관 개방에 대해서는 한변쯤 다뤄줄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 또한 논리적으로 잘 나타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학생회관 개방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앞으로는 필자도 극단적이기보다는 양측의 의견을 잘 수렴한 제3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쟁점'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시각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그러면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쟁점'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김 현 (문과대 문예창작2)



(제1316호 4월 9일자)

삶의 활력소 제공

지난 호 여론면 오슬길에 실린 '우승 신화 주역 사격부 주장'에 대한 기사는 우리들에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해주었다.  
더욱이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고 무기력해져 가는 우리 삶에 생기를 북돋울 수 있었다.  
앞으로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이런 기사를 많이 실어 동대신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줬으면 한다.  
김수정 (인문대1)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땡, 현종이 형! 4월 25일 태어난 거 42기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훈이형, 득남 축하해요.  
△변경수씨의 제대 축하. 제대했으면 얼른 나한테 인사 와라.  
△재영형, 켈리언니! 100일 축하해요. -초코  
△송, 시험 잘 본거 축하해... -다미네기  
△96학번 선배님들, 복학하신거 축하드려요. 그러구 열씨미 생활하시는 거 정말루 보기좋네요. -98 인·철 양경  
△4월 19일 정진우 J·J야~ 짜샤 생일 축하한다. -양익인 존재 세화가  
△윤정야! 늦었지만 동대신문 수습기자가 된거 축하해. 열심히 해~ -형종이가  
△4월 16일 정·연 장재홍 선배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북한학과 98 지연언니 25일 생일 정말 축하! 내가 올해는 확실한 선물 마련해 왔으니 기대해도 좋아~^^ ♡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은영  
△새내기 법대 농구대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연수기  
△경영학부 01학번 여학우분들 새내기 농구대회 여자부 우승 너무나 축하해용...

△명래오빠♡혜연언니 1000일 축하해. -알  
△33대 총학생회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구여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리랑  
△동순 형 1차 합격 축하드려요. -97J  
△33대 총학생회 여러분, 해오름식을 축하드립니다. -이리랑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 집행부 선배들 수고하셨습니다. 유주현 수고했다. 우리 웃기느라고 선희 언니! 우리 밥 먹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9일동  
△정의과 백상기 야구대회 수고했습니다. -끝내기  
△중어중문과 MT준비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엔 꼭 갈게요. -98  
△해오름제 추진하셨던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당  
△정보관리 집행부와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합한진오빠 사랑해요!  
-학구파 01이쁜이들  
△체교과 여러분 1주일간 새내기 농구대회 기 심판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학생회 연사  
열심히합시다  
△축생축사 토토배 우승을 위해 열심히 합시다! -축생짱

△동국 한의 96 중간고사 잘 치자! -뽕일  
△명선, 미경, 명주 미행 공부 열심히...  
△농구 우승한 김에 백상기 야구대회도 우승합시다. -법대 96  
△열일곱번째 동아리연합회 식구들 한 해를 열심히 멋지게 살아갑시다!!  
△33대 자주적 총학생회 일꾼 여러분! 2001년 힘내고 열심히 삽시다!! -쌀  
△동불! 연동 열심히 만듭시다. 으싸으싸!  
△최강 5조 비수!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노는 것도 공부도 열심히 하자. -진성  
△국문지원반 연합MT, 화이팅!! 다들 잘 다녀와~ 비록 저는 사정상 못가게 됐지만, 제 뭇가지 열심히 놀다 오세요~  
그리고...  
△서희야~ 나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우리의 사랑 항상 변함 없기를 빈다! -진우가  
△영수야! 군대 잘 갔다와. -부이장  
△00 성관이 군대 잘 다녀와. -8250  
△총찬아! 너 이제 그만 잘난 척 해라. 나도 결혼 좀 해보자. -JH  
△지은이 바보야. 내 맘도 몰라주고. -YD  
△너랑 나랑 포기하기엔 그동안 한게 넘 아깝잖아!  
△유진이랑 우정이 둘다 화이팅!!  
△우리의 '뽀대' 아이들아~ 자주 좀 보자.^^ 항상 행복하길... 글구 영인아! 빨리 나서서 학교로 돌아와라~ -윤경  
△윤근아!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가 있길...

만안글

축하합니다

△진영아~생일 축하해. -정산 4학년 19811901  
△경상학부 A반 20012299 남영미 생일 축하. -8100xx-xxxxxx  
△가정교육과 3학년 최상은! happy birthday!  
△미려야 생일 축하한다. 23번째 생일을 승리로. -희장  
△DY! 22살 된 걸 축하해. 오래살았네~. -히  
△성표형이랑 정남이랑 잘 사귀어봐요. -토함 전희장  
△유민이형! 신춘문에 당첨 축하해용!  
-동국 문화회  
△수정야, 민정야 스무살 생일 축하해. -관광대 클럽 짱  
△귀정, 남철아! 생일 축하해. 우리가 얼마나 너희 사랑하는지 알지? -겨레사랑  
△경제 95 윤성만 4월 28일 토요일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셔~~ -경제 95 성훈  
△플남야. 니가 생일을 맞았단 말이지? 축하해 줄 것 같냐? -막연의 둘째 黃  
△황지현 생일 축하해! 16일 그날을 기다리마. -국사 95 일동  
△23일 정영야 22th 생일 축하해... -지현  
△우리의 코지야! 생일 축하해. 4월 18일

하루만이라도 행복해라. -학우들  
△플남과 크리스탈 시의 생일을 축하해! 즐 착해지고... -곽

수고하셨습니다

△서양화 이학번님들~ 맨날 밤샘한다고 수고!  
△학우감동 총학생회 집행님들 출범식 준비하시느라 무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요.  
△팔하모니 15기 집행님들! 춘계 MT 무사히 잘 끝내워서 고맙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필하모니 선배 일동  
△RCY! 하이길 갔다온다구 수고했고 짬나는 MT가 되도록 하자. -RCY 16기 혁  
△임마~ 아미리!! 요즘 한꺼번에 일이 많아서 힘들었지. 수고했다. 앞으로는 계속 쉬어라. 쯤~욱..^^

열심히합시다

△남, 자랑스런 면허증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야지... -베스트 드라이버  
△영임, 수진, 하영, 나! 모두들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되도록 공부 열심히 합시다!  
△4공주 영원해라! 너네 이빠! 일여왕 혼자 다 해먹을거야! -KI  
△21대 학우 승리 한의과대학 학생회 일원님들 힘내시고 교육환경 개혁의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절대원칙

△상돈아, 재석아, 열씨미 하자. -고시환  
△서울에서 살아가는 전산통계인들(정보통계) 파이팅! -94 야구보이  
△영임, 수진, 하영, 나! 모두들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합시다! 필? 공부~ ^^  
△회계 축구부 이겼다! ^^ 황팅!!  
△국문 3학년 happy하게 지냅니다. 파이팅!  
△은숙아~이런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평구

그리고...

△재석아, 격리시키기 전에 인터넷 그만해라. -법 96 김  
△건봉 오빠 군생활 잘하구, 마음은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알죠? -99정이  
△한희대 분과 2년 학우님들, 하나되는 동국한의 건설에 앞장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성  
△국사과 98학번들 20일 졸업 앨범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안 짱은 98이  
△서울캠 허준오빠! 저요~ 길기 다 나왔어요~ -경아  
△국문 3학년 happy하게 지냅니다. 파이팅!  
△진구야! '친구' 보기로 했잖아. 언제 보여 줄거야? -미나  
△경주캠 수습기자들 빠른 시일내에 꼭 만납시다. -ppuzc  
△혜영야, 빨랑 결과 보고서 올려라. -고선  
△삼미언니 약속 못지켜서 미안해요. -ls

# 학내 구성원 신뢰 바탕으로 정론직필 한 길 가는 구심체로

동국인들의 의식과 목소리를 담아낸지 51년을 맞고 있는 동대신문에 700여명의 교수를 대신해서 축하인사를 전한다.

1950년 창간 이래 동대신문은 한국대학신문의 의미있는 젊은 지성지로서 자리매김되어 왔다. 전통에 빛나는 동대신문의 역사는 바로 면면히 이어져온 동국대의 모습 자체이며, 동시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한국사회발전의 거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정보화 또는 지식정보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동대신문이 대학여론의 구심체로서 중심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등의 정보홍수 속에서 대학정보지로서 동대신문의 정체성 확립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보혁명' 속에서 '정보와의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인간중심' 일 때 가능하다고 본다.

전사회적인 개혁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대학은 총체적 위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경직된 구조에 몰입되어 있다. 왜곡된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캠퍼스에 만연되면서, 대학구성원들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대신문은 대학을 걱정하고 구성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해야 하며, 동시에 신속한 대학문화화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의무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 대학운영으로부터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인 대학문화 창조에 동대신문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잘못된 교육구조를 혁파하고 올바른 교육개혁 방향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들스러운 것은 동국인 모두가 여전히 동대신문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정면승부를 펼치면서 정론직필을 실천하고 있는 동대신문 식구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 미처 못다 한 말 때문에 늘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독자들은 행간을 모두 읽고 있다는 말로 위로의 말을 보내고 싶다.

심익섭  
서울캠 교수회장

# 역사의 혼을 불어넣는 동국의 등불로 우뚝서길

오십 일년, 반세기를 넘어 꺼지지 않고 타오른 불길이 있었기에 이 대학은 동국을 비추는 등불로 우뚝설 수 있었을 것이다. 무릇 역사란 새겨진 흔적이기에, 오십 일년의 글쓰기는 그대로 동국대학의 산 역사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살아 있는 오늘날은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로 이루어진 지평에서란 그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일념삼천' (一念三千) 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성불에 이르는 삼천 억겁을 응축한 오늘의 이 일념들은 우주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는 잘 어지는 잘 나가 결코 아니라 우리 자신에서 비롯하여 우리의 의지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결단의 순간이어야 한다. 잘나를 순간으로 되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동대신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 하라고, 글자 하나, 그림 한 획을 종이 위에 새겨 넣는 것은 곧 역사가 혼을 불어넣는 엄숙한 행위이다.

따라서 어떤 기사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에야 동대신문은 동국대학의 새로운 역사 창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동대신문에게 바란다.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과 번민을 함께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학생들이야말로 동대신문의 진정한 주인들 아니겠는가. 비록 학생들에 '의한' 신문은 못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신문이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 '의' 신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문으로서 더욱 알차게 성장해가길 기원하면서, 동대신문 창간 오십 일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배의용  
경주캠 교수회장

# 동학의 죽마고우여, 참된 언론으로 거듭나라

동학 곳곳에 개나리와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학생들의 웃자람과 발걸음이 한결 생동감 있고 가벼운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우리 곁에 완연히 찾아왔음을 느낀다. 이렇게 좋은 봄날의 화사함과 싱그러움을 온 가슴으로 느껴며 동대신문 신 한 돌에 부쳐 2만 동국인에게 인사를 하게돼 반갑기 그지 없다.

동대신문 창간이 올해로 벌써 51주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동국대를 다니는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 동국의 95년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우뚝 서 있는 동대신문! 이제 그 동안의 집결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참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우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과 쇄신을 이루어낸 동대신문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진보적인 대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학신문이 그동안의 숭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보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올곧게 이 사회를 밝혀내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왔던 점은 우리 2만 동국인이 자부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뀔수록 우리의 사회인식과 사고관도 조금씩 바뀌어 왔지만 진리와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 덕에 이 사회에서 대학이 분수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동대신문 또한 그 한 몫을 톡톡히 한 탓에 2만 동국인에게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왔다고 생각한다. 10년이던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동대신문은 지난 51년 동안 한결같이 이목 목매움을 지키며 터줏대감으로서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널리 드높이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앞으로도 얼마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동국대학교가 존재하고 2만 동국인이 살아있는 한 동대신문은 그렇게 멀고 멀고, 하지만 곳곳하고 의연하게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은 무릇 정보전달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회의 정의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아무런 논조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신문이라면 사람들에게 의문당할 수 밖에 없다. 부디 동대신문이 2만 동국인에게 참된 언론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라며 진리의 진당이라 불리우는 대학에서 발간되는 신문답게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논조를 가진 참된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홍민  
서울캠 총학생회장

# 끊임없는 고민으로 통일을 이야기해야

철천막 거례의 뜨거운 심장이 6·15 공동선언을 향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가슴속에 묻어둔 수많은 사연들과 그리움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목이 메이고 쓰러지는 광경을 우리는 분명 보았다. 철천막이 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한 분단이, 미국이 이토록 우리 민족을 짓밟아 왔다는 것에 놀라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우리 민족이 일어선다.

이러한 커다란 물결 속에서 창간 51주년을 맞은 동대신문사 기자들은 대중언론창출 그 한길을 가겠다고 외치는 가운데 대중언론활동가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때

대중언론활동가의 지위와 역할은 자주민주통일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신념으로 간직할 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주민주통일의 주인공제가 되면서 대중언론활동가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자기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동대신문사 구성원 하나하나가 통일을 염원하고, 동대신문사라는 조직이 통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기자들이 만드는 '동대신문'이라는 지면을 통해 통일을 적극 이야기하면 좋겠다.

동대신문사의 창간 5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난희  
서울캠 생지대 학생회장

동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동대신문이 51주년의 역사를 맞이한 것을 가슴깊이 축하한다. 대학의 언론은 그 대학의 얼굴이요, 목소리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독재와 항거하며 민주정부 수립의 합성이 드높을 때 대학 신문은 투쟁의 깃발이요, 나침반이었다.

민족이 하나되고 민족의 자주를 외치고 있는 지금, 대학 언론의 사명은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의 장벽을 하나하나 깨어내는 일이다.

또한 대학 신문은 학생들의 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고민하는 것을 기본으로 대학 내 모순의

적결과 더 나아가 그 구조적 대안 찾기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더욱 늦추지 않았으면 한다.

언제나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고민하면서 학내 구성 주체로 '지주적'이고 '주인된' 참된 '삶'을 만들어 가는 길을 힘 없이 달렸으면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기울일 줄 알며 학생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는 동대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번 희망의 새세기, 통일의 새세기에 언제나 동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라며 동대신문의 생일을 축하한다.

황선민  
경주캠 인문대 학생회장

# 동대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축사

# 독자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획·소재 발굴에 최선을

먼저 2천 전국대학신문기자를 대표해 강산이 5번이나 넘게 변했을 긴 세월동안 언제나 대중언론 창출의 그 한길을 가기 위해 정열을 바쳤던 동국대 신문의 창간 5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금까지 대학신문이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 보면 거센 급류 위 외나무다리를 타고 온 듯한 느낌이다. 정권과 자본 앞에 꺾이지 못한 기성 언론을 대신해 양심과 청춘을 걸고 정론의 길을 걸고자 했던 터라 무수한 탄압과 공세에 시달렸던 세월이었고 가슴 쓰리게 분노한 흔적을 담은 취재노트를 며칠 밤 원고와 싸움하며 인쇄까지 마음 졸이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고자 하지 않았던 대학신문의 노고 앞에 민중들은 '진보'라는 이름을 땀땀하게 불어주는 지도 모른다.

동대신문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 4월 '동대신문'이라는 제호로 첫 출발을 고하고는 올바른 지식인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담고 정권의 불합리한 부분을 소리 높여 꼬집어 냈으며 통일의 포문을 연다는 소명으로 방북 취재 사업을 힘차게 벌여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동대신문을 비롯한 우리 대학신문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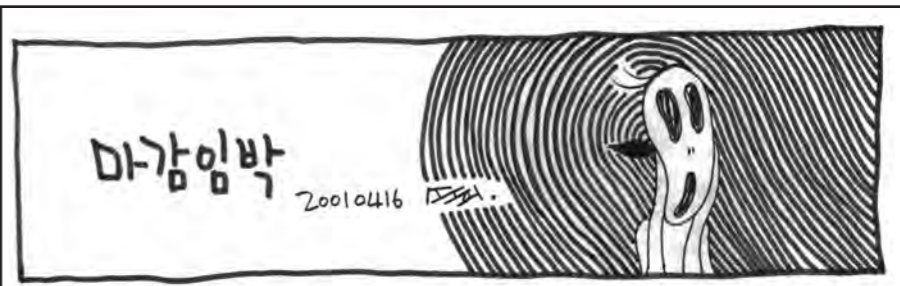
급변하고 있는 민중의 정서를 따라가기 위해 지금보다 더 공부하고 뛰어다녀야 하며 신문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독자들을 위해 신선한 기획과 소재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 습득과 의견 표출의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독자들의 정서를 수렴하기 위한 물적 체계 수립도 대중신문 창출을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준비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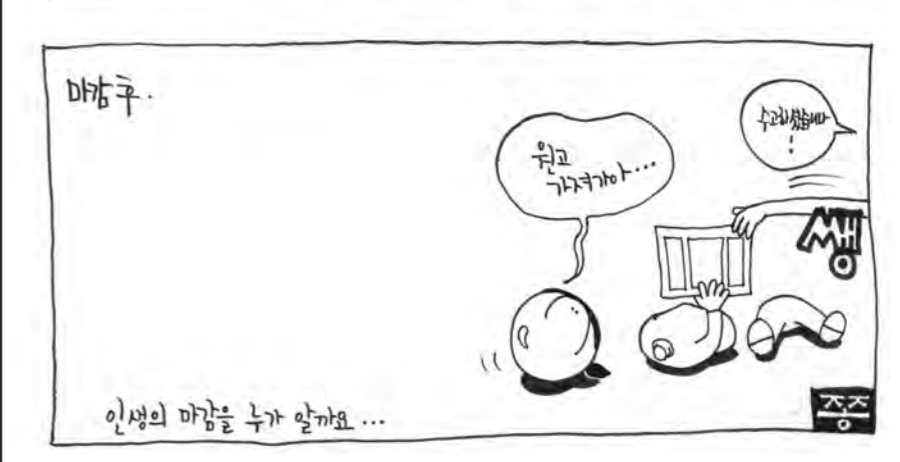
언론의 주인은 신문을 읽는 독자라는 생각으로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대중신문 창출의 '일대 도약'을 이루는 해가 바로 2001년 올해가 되어야 한다. 그 길에 동대신문이 선봉장으로 나서길 기대해 본다.

고윤정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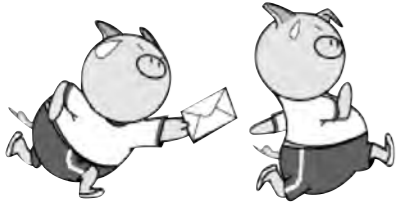
#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기울이는 신문으로



-임소희- takethepower@naver.com



식당	일	화	수	목	금
동국대 학생식당	돈육찌개 (1300)	설렁탕 (1500)	장터국밥 (1300)	참치찌개 (1500)	짬뽕국밥 (1500)
	열무비빔밥 (1500)	콩나물볶음밥 (1300)	치킨샐러드 (1500)	소고기카레라이스 (1300)	소고기볶음밥 (1500)
상록원 학생식당	돈간풍기백반 (1500)	장떡밥 (1500)	두부김치 (1500)	순살돈까스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참치김치찌개 (1300)	불고기백반 (1500)	오징어덮밥 (1500)	후랑크볶음밥 (1300)	김치찌개볶음밥 (1500)
상록원 교직원 식당	미트볼탕수덮밥 (1500)	치킨볶음밥 (1500)	탕수육 (1500)	돈육계란장조림백반 (1500)	스파게티 (1500)
	우렁된장찌개 (3000)	조랑떡국 (3000)	참치전골 (3300)	버섯이채소밥 (3300)	속원자전골 (3300)
경주캠 학생인문 식당	아육국 (1300)	미역국 (1300)	복어채국 (1300)	근대국 (1300)	된장찌개 (1300)
	돈가스 (1500)	열무김치비빔밥 (1500)	참치이채비빔밥 (1500)	미트볼덮밥 (1600)	양송이볶음밥 (1600)
(단위:원)	김치볶음덮밥 (1600)	전주비빔밥 (1800)	닭갈비볶음밥 (1700)	쇠고기볶음밥 (1700)	짜장덮밥 (1700)
	팔보채덮밥 (1800)	육개장 (1800)	낙지볶음밥 (1800)	스페니쉬푼잡 (2000)	탕수덮밥 (1800)



# 쉽없는 전진으로 다시 일어나라!

## 패기어린 실험정신 · 주체성 발휘, 대학문화 위기 극복으로 정체성 회복

동대신문이 동국인과 함께 해온 지도 어느덧 51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해도 다섯 번은 변했을 50여 년의 세월동안 대학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대학문화 역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동대신문 창간 51주년'을 맞아 90년대 대학문화 재조명과 2000년대 대학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결코전, 유럽연합(EU) 탄생, 남성의 떨거진 고개를 들게 한 비아그라 발명, 북제약 돌리의 탄생, 아시아에 불어온 IMF바람,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테레사 수녀의 사망.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인 것만 같은 이 사건들은 지난 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1990년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언제나 떠올리게 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는 말처럼 되돌아본 90년대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시대'였음이 분명하다.

대학문화에 있어서도 90년대는 큰 변화를 일으킨 시기였다. 7, 80년대 대학이라고 하면 떠오르던 운동권 학생들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이분법이 사라진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열광한다.

"인터넷이 없는 세상? 리포트는 어떻게 써요...?"

요즘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찾을 수 있고, 없는 게 없다는 보물섬 인터넷이 없다면 당장 불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확산된 것은 겨우 2~3년에 불과하다. 90년대 학번들만 해도 도서관을 드나들며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책을 산처럼 쌓아두고 읽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사용은 이러한 모습을 예전 드라마에서나 나올까진 장면으로 전락시키며 90년대와 2000년대 대학문화를 구분 짓는 가장 확실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 변함없는 화두, 미국문화

우리말 기사에 영자식 억양 액센트를 부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사랑'은 '샤랑'이나 '샤랑', '저 바다에 누워'는 '저 바다에 누우워'로 발음하기에 이르다. '팝송 같다', '영어 같다'는 식의 미국화 경향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본지 제1104호  
1992년 9월 2일자 -

92년도에 쓰여진 기사가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언어파괴

현상과 미국화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문제제기 때문이다. 주체적·자생적 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미국문화를 답습한다는 지적은 9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했지만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섹시조 패션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개인적 욕망과 정서 등이 대학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소통하는 것이 대학문화다. 90년대는 대학문화의 위기라고 할 만큼 대학문화가 그 나름의 개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문화 속에 함몰되어 정체성 상실이라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2000년대의 대학문화 역시 이 상태로 간다면 90년대 대학문화처럼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2000년대 대학문화는 패기어린 실험정신을 기본으로 주체성을 회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손상민 기자  
neog292@dongguk.edu



## 달하나 천강에

### 교육 이산



이승영  
경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현대 한국사에서 이산이라는 비극은 우리 민족과 운명적 인연을 맺고 있는 듯하다.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저마다 극적인 사연을 지닌 채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이러한 이산이 누구도 원하지 않은 결과였다면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산은 합리적 이산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이 이산한 사례가 새삼스럽지 않은 것이 오래다.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가족과 애정으로 엮여 가는 일상 또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삶이며, 행복이며, 추억이다. 그러나 오로지 돈을 벌어 자녀와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기계로 전락한 가정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아우르고 있다. 안전한 가정이 해체된 데에서 야기되는 삶의 '비정상성'은 우리 사회의 양치보다는 그들의 모습이다. 가족이 활기 있게 웃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불이 켜진 집이 아닌, 어둠과 적막이 기다리는 쓸쓸한 빈 동지로 찾아드는 가정에게 그 다음날 활기있게 일할 에너지의 충전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또한 이 시대의 자발적 이산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그들의 존재는 '이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에도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 땅의 교육을 믿지 못하고 남들은 저런 고통마저 감행하는 데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족이 이산하지 않고 사는 '호사'를 누리며 살면 우리 아이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혹은 아무리 벌어도 가족 이산을 가능하게 하는 외화송금은 턱도 없어 남들처럼 그러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주눅 아닌 주눅'이 들지진 않을지.

해외유학생의 숫자가 인구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해외 유학의 경비는 우리 경제문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런 이산의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자발적 가족이산을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남북분단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 가버린 한 많은 이산 희생자들은 무어라고 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행복을 팔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김진열 감독의 '팬지와 달팽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변두리 서민 아파트 옥상에서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남편에게 구타 당하던 여성부터 음식 배달 아줌마, 철없는 술집 여종업원까지. 그들은 남성 중심의 세상을 향해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호소하며 몸을 던진다.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여성들의 모습을 이제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은 서울여성영화제가 올해로 3회를 맞이한다. 지난 97년부터 격년제, 비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이 영화제는 여성의 시각에서 다양한 삶을 그린 영화를 소개하고, 실력 있는 여성감독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2회 때 우수상을 수상한 장희선 감독의 '고추 말리기'가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16mm 영화로는 드물게 극장

에서 개봉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는 커진 규모와 풍성해진 내용을 자랑하며 지난 15일 막을 올렸다. 국내 단편으로 국한해오던 것을 아시아 단편으로 범위를 넓혀, 2회 때보다 20여편 많은 70편을 오는 22일까지 상영하는 것이다.

먼저 평범한 남도 여성의 일상을 포착한 김소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거류'가 영화제의 포문을 연다. 이어 뉴커런츠 △프랑스 특별전 △대만 여성감독전 △한국영화회고전 △쟁쟁 여성 영상공동체 △아시아 단편 경선의 총 7개 부문에 걸쳐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과 하이퍼텍 나다에서 영화관이 벌어진다.

### 메이닝즈 강요 탈피 여성의 삶 살피는 다양한 시선

이 여성영화제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뉴 커런츠'는 국제무대에 선보인 여성감독들의 영화를 소개해 세계 여성영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미국 캐린 쿠사마 감독의 '결과이트'와 카티아 뱅코우스키 감독의 세계 여성프로레투 챔피언의 이야기 '새도우 북서' 등 20편이 '뉴 커런츠'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특별전'에서는 '아네스 바르다'의 작품

7편이, '쟁쟁'에서는 전쟁을 둘러싼 여성들의 기억과 경험을 그린 5편이, '한국영화회고전'에서는 60년대의 왜곡된 여성상을 보여주는 4편의 코미디 영화가 관객을 찾아간다. 그밖에 '감독과의 대화'와 여러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여성영화와 여성영화인을 만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쟁쟁' 프로그래머 김선아씨는 "페미니즘을 강요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성들의 다양한 시선과 삶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획·홍보 스텝 안선미씨는 "앞으로 여성문제를 다룬 남성작가와도 함께 할 계획"이라며 "항상 열려있는 영화제에 그 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서울여성영화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억압이 남아있는 현 사회에서 여성들이 보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카티아 뱅코우스키 감독의 '새도우 북서'.

# 제39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 응모부문

시·시조 : 2 ~ 3편 이내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예선

방법 : 본사로 접수한 응모작 중 원고심사를 통해 본선참가대상자 선발  
제출기간 : 2001년 5월 1일 ~ 5월 9일  
제출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문의 : ☎ (02)2260 - 3491, 3492, 3149  
Fax (02)2279 - 1270

### 본선 입상자 특전

- ◆ 각 부문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 각 부문 우수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 1년간 등록금의 30% 면제
- ◆ 3위(가작)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시 문학 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 본교 재학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주의사항

응모작품 곁봉에 '문학콩쿠르 작품제중'이라 쓰고, 참가신청서와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E-mail, 팩스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참가신청서 다운과 자세한 사항은 동대신문사 홈페이지(http://dgupress.dongguk.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떤 펜을 선택하느냐는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문학콩쿠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39년간 우수한 작가들의 예비무대가 되어온 동국대학교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 매체비평

#### 인터넷 사이트편

ohmynews.co.kr

“뉴스 게릴라들의 반란,  
초심으로 대안언론 이어가길”



24시간 리얼타임뉴스로 우리 사회의 진실상을 규명하는 오마이뉴스.

새로운 것의 출현은 늘 가슴 설레는 기대감을 동반한다. 여기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소시민의 해방과 민주화 확산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대감을 던져 놓는다.

바로 '오마이뉴스(ohmynews.co.kr)'도 그랬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가슴 뛰는 철학으로 1만여 명이 넘는 뉴스 게릴라들을 끌어 모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기자는 별종이 아니다. 새소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 시민 모두 '기자가 된다. 기자의 문턱을 없애 버리고 시민을 제보자와 독자투고란에서 기자로 승격시킨다는 의도가 신선하다. 나도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유쾌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다. 더 독특한 발상은 기사공식 파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디오 독자시연

으로 어울릴 것 같은 잔잔한 개인 일상사는 오마이뉴스 머릿기사로 손색이 없다. 사실 개인의 삶에서는 '남북회담 결렬'보다 '그녀와의 이별'이 더 의미 있는 사건일 수 있다. 더 이상 뉴스의 주변인이기를 거부하고, 작지만 소중한 주인공으로 나서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생활체험 소식만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상천외한 뼈대는 '각종 사회비리에 처절한 통증을 날리는 것을 임의로 삼는다'며 폭로와 저항의 문화를 선도하는 판지일보의 그것과 닮아 있다.

20세기 신문 문화와 철저한 결별을 선언하고 대안언론으로 발돋움 나선 오마이뉴스가 어느새 언론개혁의 선두에 서 있다. 더 이상 쓰레기로 변한 뉴스, 식중독을 일으켜 구역을 불러오는 거짓 정보들을 용

납하지 않는다. 권력과 자본으로 중무장한 추악한 언론을 향해 날릴 기세다.

이처럼 오마이뉴스는 24시간 리얼타임 뉴스로 우리사회의 부패지대와 특혜지대를 향해 불화살을 날린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하얀 백지를 현실세계와 똑같은 모습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기성언론들의 공세를 이겨내고 고려대 강연을 앞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망한 표정들을 그대로 담아냈던 특종은 오마이뉴스의 엄청난 힘을 예고했다.

그러나 언론개혁을 자랑하는 기존 언론사들은 오마이뉴스의 존재조차 부정한다. 오마이뉴스 기자의 인친공화 기사출입을 제재하고 '시민기자'라는 발상자체를 거부하고 나서서 것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가 대안언론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에 앞서, 기존 언론의 비뚤어진 '기자론(기자라는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특별함을 부여하는)'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의 다짐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와 뉴스 게릴라들의 반란은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빛나는 실험만이 오마이뉴스의 신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초고속 성장과 함께 이루어낸 막대한 힘을 언론개혁에 쏟아 붓겠다는 오마이뉴스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명심하라!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김지혜 문화부장  
wisdom@mail.dongguk.ac.kr

# 인식 변화 날개달아 새로운 장례문화로

## 죽음에 대한 학문적 성찰 '불교장례문화연구회'



이덕진 불교장례문화연구회 회장

전통 불교 장례법 연구를 통해 현대에 맞는 장례 의식을 정립하고자 본교 불교대학 장례문화학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불교장례문화연구회'의 이덕진 회장을 만나 장례문화연구회에 대해 들어보았다.

- '불교장례문화연구회'가 결성된 취지는.  
= 현행 우리 장례문화는 불교와 유교가 마구 뒤섞여 있다. 이것을 문체라고 보고 건전한 불교식 통과례를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장례문화를 창출하려는 취지에서 장례문화학과 학생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다. 또한 장례문화와 관련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장례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올해 2월 28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장례문화는 무엇인가.  
= 부다는 죽음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부다는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도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의

물질적 요소인 색은(色蘊)과 네 개의 정신적 요소인 수온(受蘊)·상온(想蘊)·행온(行蘊)·식온(識蘊)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가 쓴 옷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我)'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물질적 요소인 오온을 '아(我)'로 착각하는 것이 된다. 불교에서는 '생사주멸반(生死涅槃)'이라고 해서 죽음을 생애의 과정에서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통과례로 보고 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지금은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www.kfci.net)를 통해 불교장례상담, 죽음관 연구, 타종교와 다른 나라의 장례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자원 봉사팀을 중심으로 장례에 대한 사례별 체험을 모아 활자화하고 비디오프로젝션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불교장례문화학 개론이나 불교법요집을 펴내 불교 장례문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손상민 기자  
neo922@dongguk.edu

## 매체의 눈으로 본 장례문화



영화 '죽제'는 죽음을 하나의 축제로 보고 있다.

사례(四禮), 관(冠)·혼(婚)·상(喪)·제(祭) 중 사례는 주검을 병풍으로 가리켜놓고 남은 이들이 벌이는 잔치, 즉 장례절차를 뜻한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장례에서 자신의 죽음을 본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과 삶을 넘어 모든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것이다. 이런 장례의 모습은 여러 매체 속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죽제'는 87세로 세상을 떠난 한 어머니의 삼일장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영화는 자막을 통해 남도의 장례절차와 의미를 안내하며 우리 장례식을 한풀이 난장과 대풍 마당으로 풀어낸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장례식을 끝이나 단절이 아니라 삶의 대물림을 위한 축제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소설 속 주인공 청암 부인은 '나 죽은 다음에는 똥

네 사람들 후히 먹이라며 자기 재산남이 흥겹고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 소설은 상에 오르는 제수의 종류와 위치에서부터 사당에 신주를 모시기까지 사례의 모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며, 그 중에서도 신주 모시는 과정의 풍토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영화와 소설이 전통 문화 속 장례를 나타낸다면 오늘의 장례문화를 이야기하는 매체가 인터넷 사이트이다. '중앙장례문화원(http://funeral21.co.kr)'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중앙장례문화원의 홈페이지로 △장례의 유래·절차·상식·용품 △장례행정·법규 △국공립묘지 △외국 장례문화 △장례정보센터 △추모공원 △자라실 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통해 장례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새로운 영혼의 쉼터 '만불사 납골당'



만불사 부도탑(위)과 왕생당(아래).

흔히 무덤이라 하면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도깨비굴이 번쩍이는 으스스한 공간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경북 영천 만불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만불사 납골당은 전혀 색다른 풍경이다.

만불산에 이르면 우선 만불사 납골당에 다다르기까지 불거리가 많다. 산 정상에 위치한 국내 최대 높이의 '아미타 영천 대불'부터 스리랑카에서 직접 가져왔다는 보리수, 1천80개의 입불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광경을 뒤로한 채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석가모니 진신사리 5과'를 따라 산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부도탑이다.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부도탑 뒤에는 전나무 한 그루가 수호하듯 서 있고, 앞쪽에는 상서 향로병이 단아하게 자리잡고 있다. 과거 스님들의 육신을 대비한 후 나온 사리나 유해를 안치 할 때 사용했던 부도탑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매장문화와 화장문화가 절충된 형태라 볼 수 있는 부도탑은 시선이 안치된 무덤이라기보다 하나의 조형물 같은 느낌이다.

만불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한곳, 바로 '왕생당'이다. 은은한 조명이 가득 매우고 있는 실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납골함이 안치되어 있다. 이 곳은 나지막한 불경소리가 울려 퍼지는 새로운 영혼의 쉼터로, 조상과 자손들이 만나는 성스럽고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영천 만불사의 납골문화는 현대적인 납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자연과 녹지대가 어우러진 만불사 납골당은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환경친화적인 삶의 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정윤미 기자  
copy@mail.dongguk.ac.kr

다. 또한 어류를 주축으로 하는 필리핀 원주민들은 죽은 후, 자기의 몸을 어류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로 '수장'을 한다. 이 외에도 티베트에서는 자연으로 육체를 되돌린다는 의미로 조류에게 시신을 먹이로 내어주는 '조장'을 하고 있다.

### 우리 나라는 어떻게?

우리 나라는 유교식 장례문화가 보편적이다. 고유 명절이면 TV에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성묘객들의 모습을 통해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우리 민족의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선산이나 명당지리에 터를 잡아 조상의 묘를 쓰고 제사를 지내는 유교식 장례문화는 산업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 민족과 떼어 수 없는 전통문화이다. 이러한 매장문화는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지정된 공동묘지나 마을 산에 묘를 써 집단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최근 각계각층에서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지방단체가 '화장유연 서약'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고건 시장이 화장서약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 유교 등의 국내 주요종교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화장을 선호하던 불교는 물론이거니와 매장을 중시하던 유교 관계자들도 조심스레 화장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해 7월 기독교계에서는 대규모 납골당을 조성하는 등 화장문화 확산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실제 장례의식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통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의 경우 화장률이 98년 36.5%에서 지난해 49.5%로 13%상승한 것이다. 전국의 화장률이 아직 30%선에 머물고 있지만 이 역시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서울시 내에 환경친화적 공원개념의 종합 장묘시설인 '추모공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TV 흡수평에 '가족납골묘'가 이색 상품으로 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인터넷 상에는 '사이버납골당'이 등장해 화장과 납골문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변화를 돕고 있다.

이제 장례문화는 더 이상 절차와 형식을 고집하며 거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맘자를 기리는 본질을 추구하며 죽음을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함께 이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킨다. 빈 수레의 요란함을 자랑하지 않는 장례문화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알리느라 여념이 없다.

지역문화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튼튼한 밑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양문화에 어느새 익숙해진 우리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많이 잊고 사는 듯 하다.

서양문화에 대한 지나친 호감이나 선호와는 달리 우리 고유문화에 대해서는 무관심 일색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3회에 걸친 기획을 준비했다.

1. 김치
2. 아리랑
3. 장례문화

편집자

아프리카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그들만의 무덤'을 향해 발길을 돌린다. 집단 서식하는 코끼리들은 집단 구성원들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두고, 그 장소에서 죽음을 맞는다. 동물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름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 장례문화를 알려주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동물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나 방법이 다양하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혹은 종교에 따라 각각의 장례문화를 영위한다.

미국의 경우 기독교 의식을 반영한 장례식을 치르는데 시신을 방부제 처리하여 조문객에게 보여주는 장례 형식이 보편적이다. 장의사의 역할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타국에 비해 크다는 점이 특색이다. 스페인은 4-5m 높이의 아파르티스 콘크리트 묘실인 '니초(Nicho)'를 묘지로 이용한다. 이 아파르티스 묘실은 지상면적 1평에 평균 15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어 스페인을 묘지난이 없는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힌두교의 전통이 강한 인도에서는 죽음을 삶과 다르지 않게 보면서 영원한 자유로 가는 또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한다. 인도인의 80% 이상이 전통적인 화장법에 따라 죽은 뒤 3시간 안에 화장하며 그 재를 강물에 띄워보낸다. 그러나 활판, 수두, 사고사, 임신부, 동물 등은 이생에서 주어진 카르마(업)와 다르마(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여 화장이 허용되지 않는



### 메아리

#### '기초' 탈출

▲토요일 저녁 6시. 전국의 청소년들이 탈출작전을 펼친다. '악동클럽'이라 불리는 탈출작전은 '잡채된 끼를 발산할 곳을 찾아 해매는 학생들에게 그 꿈의 실현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방송은 처음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 학생들에게 '연예계 입성'이라는 미끼를 제공, 이에 참여한 학생들을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단순한 불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얼마전 서울대가 2001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했다. 공대와 자연대 신입생의 수학(數學) 기초능력평가 결과, 대상자의 7.7%가 30점(100점 만점)미만이고 당초 낙제판정기준점인 40점 미만은 22.0%로 나타났다.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기초능력시험의 경우 22.4%가 500점(1천점 기준)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려해 오던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현상을 사

실로 드러낸다. 비단 서울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 사정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현 대학입시의 유일한 잣대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변별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능에서 고득점만 획득하면 된다는 인식의 팽배로 이어져 학문의 본

질에 대한 고민과 학습보다는 수능 유형에 맞춘 학습방법을 택하는 학생들을 양산했다. 때문에 학생들이 객관식과 단답형에 익숙해져 버려 기본응용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능력을 '수능'이라는 입시 제도가 오히려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매년 11월. 전국의 청소년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불리는 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의 수학(修學) 능력을 평가해 대학

수업 가능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대학입시 제도. 그러나 현 대학입시 제도는 본 취지와 달리 대학입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고등학교가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 전락해 버린 지금, 정부는 현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처음부터 새로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표은영 문화부장  
pisik20@dongguk.edu

책소식

우리집 음식 동의보감



본교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들려주는 바른 섭생법과 음식 건강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갖가지 음식과 한약재의 성질, 약효, 활용법을 그림과 함께 문답법으로 쉽게 풀어낸다.

정지천 저/ 중앙생활사/ 정가 9천500원.

유마경대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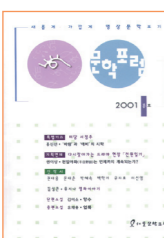


인간의 본질을 구원하려 노력한 유마거사와 같이 거사인 저자가 '유마경'을 강론 형식으로 풀어 놓았다.

집착과 편견 등의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탈한 무아(無我)와 불이(不二)의 윤리학을 실천한 유마의 정신을 통해 모든 인간이 아집과 아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안내한다.

김기추 저/ 불광출판부/ 정가 1만2천원.

문학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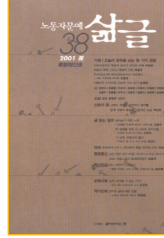


지난해 1월 창간한 이래 문학과 영상이 만나는 새로운 지평을 꾸며온 문학포럼의 2001년 봄 호.

미당 서정주 시인에 대한 본교 출신선 교수의 글과 영화 속 여배우 스타시스템에 대한 본교 유지나 교수의 글도 만나볼 수 있다.

이광본 편/ 서울문학포럼/ 정가 8천원.

노동자 문예 삶글



전국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노동자문학회의 소책자를 통합해 묶었다.

구로노동자문화회 '삶글'의 제호를 이어 받은 것이 노동자 문예 '삶글'로 발간, 노동자문예의 꾸준한 역사성을 표현한다. 소외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글로 표현, 대변하고 있다.

송경동 편/ 삶이 보이는 창/ 정가 8천원.

부생(父生), 아버지 날 낳으시고



경제체제와 실업대란 속에서 흔들리는 아버지들의 모습과 자리를 재확인하고, 묵묵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책.

우리 아버지의 모습

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며, 동·서양 고전과 현대작품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 든 것을 보여준다.

강승기·정은경 편저/ 지수출판사/ 정가 9천500원.

변화의 두려움을 사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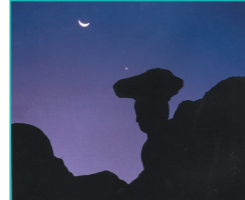
평생고용, 평생직장이 사라진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경력관리 방법을 소개, 스스로를 컨설팅할 것을 당부한다.

사회 초년생들이 알아야 할 인생 로드맵과 자기 기량과 경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법,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유수신 저/ 풀빛/ 정가 8천원.

전시소식

불교사진연람회 회원전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사진연람회가 제6회 회원전을 연다.

각 사찰의 모습과 사찰로 이어지는 길의 아름다움, 연꽃의 우아한 자태 등 부과 인더에 담긴 부처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1차 전시=오늘(월)부터 21일까지. 총무로 후지포토씨롱에서. 문의 2273-5480

2차 전시=오는 24일부터 5월1일까지. 견지동 조계사 경내에서. 문의 725-0641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전



'인류최초의 문명 발상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이 경주를 방문했다.

고대인들의 생활용품을 비롯해 귀금속, 제기, 신상, 석기연장, 점토판 등 720여점의 메소포타미아 유적이 전시되고 있다.

헬레니즘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1세기 로마시대 모자이크도 함께 전시하고 있는 이번 문명전은 인류최초의 문명이 한국고대 유적지와 어우러지는 문화교류의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6월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특별전시관에서. 문의 (054)745-0944

한국의 옛 벼루전



옛 선비들의 필수품인 문방사우 가운데 하나인 '벼루' 전시전이 열리고 있다.

포도연, 일월연, 신수연, 오동연, 봉황연 등 조선시대 벼루 총 2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예로부터 그 재료와 종류, 생김새가 다양해 선비들의 애장품으로 사랑 받던 벼루 예술을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6월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기획전시실에서. 문의 (054)745-0944

동방문화전



신라역사와 우리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역사문화 체험의 장이 열렸다.

도입영상, 뮤지엄 샵 등 7개 전시관에서 한국복합서화와 신라도자기가 전시되고 있다.

또한 팔만대장경 탁본과 신라토기, 도자기 제작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시각에만 의존하던 전시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동방문화관에서. 문의 (054)745-0944

문화이미지전



인류역사의 흐름을 문화탄생, 문화상승, 문화상실, 문화복원의 4단계로 나눠 그 이미지를 전시하고 있다.

세계 유명 유적과 그 의미를 한눈에 조망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가려졌던 역사의 비밀을 밝히고 있어 그 의미가 새롭다.

인간의 욕망과 이데올로기가 가져온 문명괴괴의 현장을 통해 미래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새천년의 숨결관에서. 문의 (054)745-0944

공연소식

신라천년을 넘나드는 가상공간



천 년 전의 세계가 다시 깨어난다.

월성, 안압지, 석굴암, 첨성대 등을 무대로 고대 신라가 새롭게 펼쳐진다.

입체음향 시스템과 상황에 따른 각종 후각기능, 더불어 저주파로 흔들리는 의자의 첨단기술이 관객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세계최대 한국최초의 가상현실 전용극장에서 역사체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사이버영상관에서. 문의 (054)745-0944

동아리 탐방 - 경주캠 동국볼링클럽

퍼펙트 게임만큼 값지고 힘찬 정열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볼링 대회 개최하기도

하나, 둘, 셋 구령 소리에 동반된 신발의 마찰음.

매주 화, 목요일이면 경주캠 학생회관 4층 복도에서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동국 볼링 회원들의 자세 교정 연습 소리다.

동국 볼링 회원들의 활동적이면서도 신중함 움직임이 느껴지는 이 자리에는 물씬 배어있는 땀내음이 있다.

그들은 평소 볼링의 두 가지 기법인 스트레이트와 훅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기법에 따라 스텝과 볼의 세기도 달라지지만 결국 스트라이크의 유무는 올바른 자세와 집중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동국 볼링인들.

87년에 창단된 동국 볼링클럽은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많은 수상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작년의 경우 동국볼링클럽 주최로 열린 '제13회 백상배 전국 대학생 볼링대



지난해 10월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 OB전에 참가한 동국볼링회원들.

회'에서 남자 신입부 1위를 차지하고 '제9회 문수배 전국 대학생 볼링대회'에서 여자부 1위를 따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수상 비결에 대해 박성빈(경영2) 회장은 "지도 교수님과 졸업 선배들의 세심한 가르침 아래 우리는 단 한 번의 게임이라도 अच्छ게 소화하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또 이들은 동아리 홍보를 위해 대구, 경북 지역 대학 볼링 동아리, 교내 과동아리 등과의 교류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오는 2학기 개최할 예정인 '백상배 대학생 볼링 대회'는 올해로 14회를 맞는 전국 규모의 대회이며 그간 경주시 볼링 협회와 연계해 진행해 왔다. 여러 해 동안 이 대회를 진행해 오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친목을 도모한 것이라고 한다.

대외활동을 펼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한 회원은 "우리는 학교의 이름을 건 행사인 백상배를 위해 전 회원이 반납 가지 않고 스폰서를 구해야 한다"며 학교측의 동아리 지원 부족을 아쉬워했다.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동아리 홍보와 하이 게임에 필수적인 집중력 연마를 위해 매일 땀을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동국 볼링클럽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 본다.

형진우 기자 premier@mail.dongguk.ac.kr

### 손짓으로 나누는 사랑 III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시험**  
주먹 쥐 양 손 엄지를 펴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마주하고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공부**  
양 손을 펴서 옆으로 앞뒤로 2~3번 흔든다.

**열심히**  
주먹 쥐 양 손의 엄지를 펴서 허리 옆에서 앞으로 힘있게 내민다.

**해야지**  
한 손은 손등을 보이고 다른 손은 손바닥을 보이며 서로 약지를 친다.

(제공: 손짓사랑회)



연등만들기 ... 불교학생회는 지난 14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재학생과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연등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기난한 여인이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올린 초라한 등불은 아무리 고려해도 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만드는 사람의 지극한 소원이 담긴 색색의 연등이 정성스레 완성되고 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